

主體思想의 內面化 實態

1994. 10

金炳魯

(北韓研究室 責任研究員)

民族統一研究院

○ 이 報告書는 民族統一研究院의 研究計劃에 依據한 自體
研究 結果임.

○ 收錄된 內容은 統一問題研究 및 政策開發의 參考資料로
提供되는 것으로 刊行處의 意見을 반드시 反映하는 것
은 아님.

民族統一研究院 北韓研究室

序 文

主體思想을 창시했고 그 이론을 심화시킨 金日成의 사망은 북한주민들에게 말할 수 없는 허탈감과 충격을 던져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지난 수년간 사회주의권의 와해와 脫冷戰 구도로 급속히 변화한 국제환경의 영향으로 體制崩壞의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는 시점에서, 북한의 대외 개방에 대한 필요성의 증대는 主體思想의 향방에 대한 관심을 그 어느 때보다 고조시키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북한체제를 지탱해 온 주체사상의 內面化 實態를 파악함으로써 향후 북한의 변화방향과 체제결속 및 정권안정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유용한 시사점을 발견하고자 하였다. 金日成에 대한 충성심을 바탕으로 내면화되어 온 주체사상은 金日成 死後 그만큼 응집력이 약해졌으며, 사회적 부작용과 변화된 주민의식을 통합하는데 적지 않은 한계성을 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主體思想은 각 생애주기에 상응하는 체계적·반복적 사회화의 학습망을 통해 내면화되고 있으며, 사회경제적 악순환에 따른 내면화의 위기도 나름대로 극복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주체사상의 내면화 실태에 대한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분석을 토대로, 본 연구는 北韓研究 및 統一政策 수립에 이론적·정책적 기여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심층면접에 성실하고 진지하게 응해주신 여러 歸
順者들과 본 연구의 추진과정에서 많은 조언을 해주신 충북
대 도홍렬 교수님께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

1994. 10

民族統一研究院

北 韓 研 究 室

要 約

主體思想에 대해 그동안 다양하고 폭넓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것이 북한주민 개개인의 가치로 內面化되어 있는가에 대한 검토와 분석의 필요성이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金日成 死後 경제회생을 위해 통제된 대외개방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준비를 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주체 사상의 내면화 정도는 향후 북한의 體制維持와 관련하여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主體思想의 內面化 實態를 사회체계의 차원과 관련하여 살펴보고, 내면화 학습과정과 내면화를 촉진 또는 억제하는 사회경제적 조건 및 북한주민의 내면화 정도에 대한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을 통하여 北韓의 體制維持 능력 및 體制의 변화방향을 평가·예측해 보고자 한다.

1. 主體思想의 內面化 分析을 위한 理論的 論議

主體思想은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규정되어 '김일성주의'의 하부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歷史적으로 볼 때 主體思想은 1950년대와 1960년대에 대외자주성 원칙과 혁명적 군중노선으로부터 출발하여 1970년대에는 김일성주의화와 혁명적 수령관으로, 1980년대에는 인간중심 주체철학으로, 그리고 1990년대에는 민족제일주의 및 우리식 사회주의로 각각 발전하였다. 따라서 分析的 次元에서 보면 主體思想은 인

간중심 및 자주성의 철학(인생관), 집단주의 생활원리(조직관), 金日成·金正日에의 충성(수령관),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우리식 사회주의)의 네 분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內面化란 일반적으로 한 사회의 보편적인 혹은 지배적인 가치가 개인의 가치로 받아들여지는 과정을 일컫는 것으로, 기능이론은 정치사회화 과정을 통해 내면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하는 반면, 갈등이론은 정치사회화를 본질적으로 통제와 강제력에 의존하는 지배관계로 보기 때문에 내면화의 진행은 불완전하다고 주장한다.

主體思想은 기능이론이 설명하듯이 북한체제의 사회화 기제 및 적절한 사회통제를 통하여 긍정적인 내면화가 진행된다고 볼 수 있으나, 갈등이론의 주장처럼 이원적인 상태로 내면화되지 않은 채 잠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잠재성은 社會經濟의 構造와 역사적 경험, 개인의 사회관계 변화, 사회통제의 성격 및 이념변형의 정당화 등의 조건에 따라 내면화로 표출되기도 하고, 반대로 '합리적 대안'을 선택하기도 한다.

2. 主體思想 教養體系와 內面化 過程

이념중심의 북한체제를 지탱하기 위해 사회성원들에 대한 思想學習은 필수적이다. 1958년 사회주의의 제도적 개혁이

완수되지 전까지는 반제·반봉건 민주주의 혁명과 계급교양이 사상학습의 근간을 이루었으나, 그후 사회주의·공산주의 우월성과 애국주의교양이 매우 강화되었다. 1960년대 중반부터는 유일사상체계를, 1974년부터는 주체사상화를, 1980년대에는 김일성주의화를 사상학습의 목표로 삼았다.

주체사상교육은 黨 宣傳煽動部 교양과에서 관장하며 1년 단위로 반복적으로 실시한다. 주체사상학습은 당조직 이외에 사로청, 직맹, 여맹, 농근맹 등 각종 사회단체와 인민반, 작업반, 분조 등 주민조직, 그리고 매중매체를 효과적으로 이용하며, 「유일사상 10대원칙」은 內的統制의 실제적 근거가 되고 있다.

主體思想 學習體系는 아동·청소년의 학습활동과 일반주민의 학습활동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사회화의 판단능력이 없는 취학전 아동학습은 자극-반응이라는 조건반사적 사회화를 통해 金日成·金正日 偶像化를 학습한다. 인민학교에서는 김일성에 대한 충성심 및 실습활동 등 덕성교육을 중심으로 학습하며, 고등중학교 주체사상에 대한 기초이론과 당정책 관련 논문을 파악하는 기본상식을 완전히 갖추도록 하고 있다. 대학에서는 주체사상의 이론적 근거와 勞動黨史 및 政策에 대한 구체적 학습을 통해 김부자의 사상이론으로 완전히 무장하도록 학습한다.

성인기에는 金日成·金正日의 교시학습을 중심으로 하며

사회적 수준과 직업별 특성에 맞게 등급별·조직별 학습을 실시한다. 등급별 학습은 간부와 일반주민으로 구분하여 간부학습은 토요일에, 노동자·농민은 월요일 일과시간 후 ‘월요학습침투’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직장에 나가지 않는 주부들이나 노인들은 인민반에서 학습을 실시한다. 조직별 학습은 각 직장별로 사로청(14~30세), 직맹(31~65세), 농근맹(31~65세, 여자 60세), 여맹(31~60세)을 중심으로 학습을 실시하는 것으로 등급반학습보다 좀더 엄격하고 철저하다. 직장별·조직별 학습의 중요한 행사로 수요강연회를 전국적으로 실시하여 시사성있는 문제들에 대해 학습한다. 모든 학습은 총화를 통해 점검한다.

政治社會學的 측면에서 볼 때 主體思想은 통제된 북한의 사회체제 속에서 생애주기에 따른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사상교육을 통해 사회화된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主體思想은 유기체적 생명관에 입각한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을 제시함으로써 맑스-레닌주의 이론이 제시하지 못하는 개인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일종의 신앙 또는 인생관으로 내면화되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主體思想은 단지 지배자들의 통치 이데올로기 수준을 넘어서 북한주민 개개인의 의식 속에 깊이 초월적 사회규범으로 형상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3. 社會·經濟的 條件의 變化와 內面化의 變化

主體思想의 내면화 정도는 역사적으로 사회경제적 조건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主體思想은 韓國戰爭 이후 대중동원을 위한 이념적 토대가 되었고 천리마운동, 청산리방법, 대안의 사업체계 등의 구체적 정책으로 이어지면서 1960년대 중반까지 북한사회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러나 196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경제가 하강기에 접어들자 그 이후 1970년대 중반까지 主體思想에 대한 내면화 정도는 전반적으로 떨어졌다. 金正日은 1967년부터 ‘김일성유일체계’의 확립작업 등 사상교육의 체계화로 떨어지는 신뢰도를 억제하였으나, 1970년대 중반 이후 심화된 산업구조의 불균형과 사회간접자본의 열악성으로 인해 北韓經濟는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도 원만히 해결하지 못하는 최악의 상태로 전락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197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 초반에 主體思想에 대한 ‘信心’(믿음)은 급격히 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1984년부터 추진한 주민생활향상 정책에 힘입어 주민들의 主體思想에 대한 내면화 정도는 정체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으나, 1989년 사회주의권의 붕괴를 계기로 主體思想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신뢰도는 다시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경제침체에 대한 이론적 합리화 작업을 추진하여 민족제일주의와 우리식 사회주의 등으로 主體思想을 지탱해가고 있으나 이와 같은 사회경제적 환경변화로 인해 主體思想에 대한 믿음은 약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북한에서 세대 간의 격차문제는 사회경제적 구조변화에 기인한다기 보다는 정치사회화의 내용과 방법의 차이로 인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50, 60대의 長年層은 자주성과 수령관 및 집단주의에 대해서 비교적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며 이해하고 있는 반면, 20, 30대의 젊은 세대는 인간중심의 철학과 민족제일주의 문제를 主體思想과 관련된 핵심적 내용으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젊은세대는 우리식 사회주의와 민족제일주의 등 최근 북한이 이론적으로 발전시킨 主體思想이론에 심취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각 세대는 생애주기 중 감수성이 예민한 아동·청소년 시기에 받은 집중적인 사상교육과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主體思想이 강조하는 특정 부분이 강하게 내면화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은 1960년대 중반 이후 성장속도가 둔화되고 1970년대 중반부터 남한경제가 급성장함에 따라 남북간 경제균형이 깨져 경제효율성에 대한 주장의 합리성이 사라지자 경제우위 대신, 무상교육·무상치료, 무세금 등 사회복지제도를 내세워 體制의 優越性을 정당화하게 되었다. 이러한 정당화

의 시도는 흥미롭게도 북한의 역사적·사회적 경험 속에서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東歐 및 舊蘇聯에서 보여주었듯이 경제침체로 인해 불가피하게 취해진 사적 부문의 확대 정책과 대외개방 정책은 주민들의 물질적 가치추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줌으로써 주민들의 의식변화와 소득구조의 이중성 및 부정부패 등과 같은 여러가지 사회적 부작용을 초래, 主體思想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왜소화되었다. 따라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개혁·개방조치가 초래한 사회적 분화현상을 主體思想이라는 이념으로 통합하기에는 적지 않은 한계를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 歸順者를 통해서 본 北韓住民의 主體思想 內面化 實態

귀순자 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면접조사 결과 현재 북한 주민들은 主體思想에 대해 다음과 같이 내면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첫째, 주체사상의 哲學的 側面에 대해서는 현재의 내면화 상태를 상당히 높게 평가하였다. 주체철학은 북한주민들의 의식 속에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며 개인의 궁극적인 가치관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둘째, 集團主義 生活原理에 대해서는 주체철학의 내면화

정도에 비해 낮게 평가되었다. 주체철학은 사람 중심으로 사고한다는 사상이기 때문에 그 신뢰도가 높을 수 있지만, 집단주의 생활원리는 사람을 조직에 묶어 둔다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본능적 욕구와 배치되어 철학적 측면의 내면화보다는 약간 낮을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셋째, 首領觀에 대해 金日成에 대한 충성심은 “열렬하며 결코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 공통적인 견해였으나, 金正日에 대한 충성심은 김일성과 비교할 때 상당히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넷째, 共產黨獨裁에 대해서 북한주민들은 정보통제 및 비교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비판할 수 있는 여지가 부재한 것으로 보이며, 經濟體制에 대해서도 대부분 자본주의가 멸망하고 사회주의가 승리할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북한경제체제가 효율적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많지 않으며 대신 사회주의의 분배정의와 사회적 혜택 등 심리적이거나 정신적인 측면의 우리식 사회주의 우월성을 내면화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내면화의 정도를 社會集團別로 살펴보면, 우선 계층·계급별 차이로 25~30%의 핵심계층은 북한체제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강하게 내면화하고 있으며, 포섭계층의 일부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체사상의 이론적 이해의 정도와 실천문제를 둘러싸고 계

층상하 간에 갈등도 발생한다.

연령·집단별 차이로는 소년단과 사로청, 군대조직까지는 사상무장이 잘되어 있으며 60, 70대의 노년층은 집단주의적 생활양식에 익숙해져 변하기 힘든 집단이다. 내면화가 가장 가변적인 집단은 30대를 전후한 혁명 3세대들로, 대학졸업 후 사회생활 초기단계에서 주체사상과 현실의 괴리감으로 인해 회의 및 권태기를 겪는다. 지역별로는 집단주의 생활에 익숙해져 있는 노동자들의 내면화 수준은 높은 반면, 농민들은 농촌생활의 불편함과 열악성 때문에 내면화 정도가 약하여 체제유지의 약한 고리로 평가된다.

전반적으로 볼 때 북한사회가 공식적으로 주장하는 만큼 성공적으로 內面化되어 있다고는 볼 수 없으나 상당한 정도의 믿음과 확신을 갖고 있으며 체제지탱의 강력한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경제활성화가 ‘완충기’ 동안에 가시화되지 않고 사회적 부작용이 근절되지 않는다면 ‘도덕성’과 ‘심리적 우월성’ 등 이론적 합리화로 體制를 유지해 왔던 主體思想의 정당성의 근거는 그만큼 약해질 것이다.

目 次

第 I 章 序 論	1
1. 研究目的	1
2. 研究資料 및 報告書의 構成	5
第 II 章 理論的 背景 및 分析틀	7
1. 概念定義	7
가. 主體思想	7
나. 內面化	10
2. 內面化에 關한 理論的 論議	13
가. 機能理論	14
나. 葛藤理論	18
3. 分析틀	20
第 III 章 主體思想 教養體系와 內面化 過程	26
1. 北韓의 社會體制와 政治社會化	26
가. 體制存續과 思想學習	26
나. 學習活動과 社會統制	32
2. 主體思想 學習體系	33

가. 兒童·靑少年의 學習活動	33
나. 生活週期에 따른 成人期の 學習活動	43
3. 內面化의 政治社會學的 過程	51
第Ⅳ章 社會·經濟的 條件의 變化와 內面化의 變化	56
1. 經濟發展과 內面化의 時期別 推移	56
2. 世代別 內面化의 力動性	62
3. 社會·經濟的 變化와 內面化의 危機管理	66
가. 經濟沈滯에 따른 合理性의 危機와 正當化	66
나. 改革·開放에 따른 社會的 副作用과 統制強化	72
第Ⅴ章 歸順者를 통해서 본 北韓住民의 主體思想	
內面化 實態	78
1. 資料蒐集 및 資料의 性格	78
2. 分野別 內面化 實態	81
가. 人間中心의 哲學	81
나. 集團主義 生活原理	84
다. 首領觀	87
라. 우리식 社會主義	95
3. 內面化의 社會集團別 差異	100
가. 階層·階級別	101

나. 年齡·集團別	102
다. 地域別	104
第 VI 章 結 論	106
參考文獻	112

第 I 章 序 論

1. 研究目的

主體思想에 관한 연구는 북한연구 중에서 가장 많은 업적이 축적된 분야로 현재에도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동안 축적되어온 主體思想 연구는 대체로 다음의 세 분야로 요약된다. 첫째, 주체사상의 등장배경에 대한 정치적 연구로 주체사상이 중·소분쟁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 내지 정적축출의 수단으로 태동되었다는 내용 등이 이 부류에 속한다. 둘째, 주체사상에 대한 이론적·철학적 규명에 관한 연구로 주체사상의 시기별 발전과정과 맑스-레닌주의와의 유사성·차별성 및 구체적 내용(철학원리, 사회역사원리, 지도원리 등)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이 이에 속한다. 셋째, 주체사상이 결과적으로 북한체제와 북한주민들을 어떻게 통제하고 있는가 하는 이데올로기로서의 기능에 관한 연구로 사회통제를 위한 각종 주민동원조직 및 주체사상의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가 여기에 포함된다.

이처럼 主體思想에 대해 다양하고 폭넓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이데올로기로서의 主體思想이 과연 북한주민 개개인의 가치관·인생관으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에 대한 검토와 분석의 필요성이 새롭게 제기되고 있

다. 즉 주체사상의 등장배경과 이론적 체계 및 기능에 대한 활발한 연구와 더불어 그것이 실제로 작동되는 토양과 역사, 인민들의 감정, 믿음 등에 관한 관심이 고조됨으로써 主體思想을 주민의 의식구조와 실천적 활동에 연결시켜 이해해 보고자 하는 요구가 생겨난 것이다.

政治社會化의 기제와 사회화의 기능을 분석한 연구의 경우에는 정치교육 목표와 內面化를 기계적으로 연결시킴으로써 主體思想의 內面化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가정하였다. 다른 경우에는 주체사상을 마치 북한주민의 의식·태도와는 무관하며 강압적으로 주입된 사상으로 가정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內面化 實態에 대한 연구는 객관적인 평가가 배제된 채 단순한 가정과 주관적 판단이 지배적이었다.

사회주의 체제의 공식이데올로기가 사회성원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가 하는 內面化 研究는 최근 사회주의 권의 개방과 더불어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는 사회주의 사회를 지탱해주었던 이념적 뿌리가 흔들렸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더 나아가 사회주의 이념의 內面化에 대한 문제점을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 즉 사회주의 체제하에서의 내면화는 官僚的 臣民意識¹⁾과 같은 집단주의

1) 徐載鎭·金台鎰, 「北韓住民의 人性研究」(서울: 民族統一研究院, 1992); 전성우,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본 독일통일 3년,” 「통일

적이고 수동적인 가치관이 주입됨으로써 대내외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반응하지 못한 채 이 기형적인 가치체계가 순식간에 아노미 상태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유고슬라비아의 자주관리제²⁾나 체제붕괴 이후 폴란드와 러시아 등에서 표출된 舊體制로의 복귀와 회귀를 둘러싼 마찰과 갈등, 그리고 東獨住民들의 사회주의에 대한 향수³⁾ 등은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맑스-레닌의 사회주의적 가치관의 內面化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北韓의 경우, 최근 金日成 사망시 보여준 주민들의 오열과 봉건적 숭배행렬은 主體思想이 주민들에게 상당한 수준 내면화되어 있음을 짐작케 한다.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경제적 열악성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체제를 지탱해 올 수 있었던 것도 바로 主體思想이라는 버팀목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

문제연구」, 제5권 4호 (1993 겨울), pp. 63~93.

- 2) 자주관리제의 경우, 한 사람의 자유는 다른 사람의 종속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집단주의 가치관의 교육이 비교적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된다.
- 3) 통일이 된 지 3년이 지난 현재 사회주의 이념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동독사람들은 77%에 이르며, 이 중 17%는 사회주의 이념을 위해 투쟁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통일원, 「독일통일 3년 현황과 전망」 (서울: 통일원, 1994), p. 297. 이같은 현상은 동독인들이 당면하고 있는 경제난에 대한 반작용으로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나 1984년 이후 산업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개혁·개방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주민들 사이에 심각한 의식변화와 부정부패 등 사회적 부작용이 발생하였으며, 이를 단속하기 위해 1991년부터 1993년까지 전례없는 ‘비사회주의 그루빠’⁴⁾ 활동을 전개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렇게 볼 때 主體思想의 內面化 정도는 경제회생을 위해 특구설정 등 대외개방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준비를 하고 있는 북한의 향후 체제유지와 관련하여 중요한 변수임에 틀림 없다. 대외개방은 비록 그것이 통제된 상황에서 추진된다 하더라도 북한주민들의 사회적·심리적 이반현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같은 사회적·심리적 해체의 심도(depth)와 속도(speed)는 현존 사회규범과 가치관으로 되어 있는 主體思想이 어느 정도 주민 개개인의 가치관과 삶의 신념으로 內面化되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主體思想이 주민들에게 내면화되어 있지 않다면 체제붕괴는 광범위한 영역에서 견잡을 수 없이 빨리 진행될 것은 분명하다. 이처럼 主體思想의 內面化 실태분석은 改革·開放이 불가피해진 시기를

4) 1991년 12월 중앙인민위원회는 「각 기관, 기업소, 군, 가정에서 비사회주의를 뿌리 뽑을데 대하여」라는 정령을 발표하였다. 이 정령은 김정일의 지시에 의해 각 직장 및 지역별로 사회안전부, 국가보위부, 기관·기업소 모범자로 ‘비사회주의 그루빠’라는 단속반을 결성하여 비사회주의 요소를 제거하고자 한 캠페인이다.

맞이하여 북한체제의 향방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主體思想의 內面化 實態를 사회체제의 차원과 관련하여 살펴보고, 내면화 학습과정과 내면화를 촉진 또는 억제하는 사회경제적 조건 및 북한주민의 내면화 정도에 대한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을 통하여 北韓의 體制維持 능력 및 體制의 변화방향을 평가·예측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研究資料 및 報告書의 構成

본 연구는 문헌조사와 면접조사 방법을 병행·사용하여 북한 主體思想의 내면화 과정과 조건들을 분석한다. 문헌조사로는 북한의 정치사회화에 관한 국내 연구문헌, 북한의 교과서, 주체사상의 이론적 변형에 관한 金日成·金正日의 저작, 그리고 방북자들의 방문기와 북한주민들의 의식구조와 내면화 문제에 대해 경험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귀순자들의 수기 및 심문조서 등을 사용하였다. 한편, 본 연구는 귀순자 8명에 대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자료의 분석에서 심층면접 자료에 비중을 두었다. 특히 이들에게 표준적 면접(standardized interview) 방법을 적용하여 북한주민들의 內面化 實態를 간접적으로 분석하였으며, 면접자료의 성격과 분

석내용은 제V장에 기술되어 있다. 소수의 표본으로 제한된 면접방법은 표본의 대표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나 심층자료의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內面化 연구에 적절하다고 본다.

본 보고서의 구성은 제I장 서론에 이어 제II장에서는 主體思想과 내면화에 대한 개념정의 및 내면화에 관한 이론적 논의들을 살펴봄으로써 연구의 분석틀을 제시한다.

제III장에서는 政治社會化 학습에 의해서 주체사상이 내면화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제IV장에서는 내면화를 촉진 또는 억제하는 사회경제적 조건에 대한 분석과 환경변화에 따른 主體思想의 이론적 변형 및 합리화에 대해 살펴본다. 이러한 내용을 검증·보완하는 자료로서 제V장에서는 귀순자들의 면접조사를 통하여 이들이 진술한 북한주민의 內面化 實態를 구체적으로 분석·평가한다.

마지막 제VI장 결론에서는 主體思想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內面化 實態를 종합평가하며 이 평가를 기초로 북한체제의 유지능력을 진단하고 향후 북한체제의 변화방향과 사회통합력에 대해 예측한다.

第 II 章 理論的 背景 및 分析들

1. 概念定義

가. 主體思想

북한의 철학사전은 主體思想을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정의하고 金日成 혁명사상의 진수를 이루는 것을 주체사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⁵⁾ 이는 主體思想이 김일성주의의 하부형태로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主體思想의 골간을 이루는 것은 무엇보다도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사람 위주의 철학적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로부터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역사원리와 자주적 입장 및 창조적 입장에 기초한 지도적 원칙이 도출된다. 이와 같은 의미의 主體思想에 대한 개념은 1982년 金正日에 의해서 체계화되었으며 그후 계속해서 변화·발전되어 오고 있다.⁶⁾ 이런 점에서 主體思想은 고정불변한 이념이 아니며 시기에 따라 그 내용을 달리한다고 볼 수 있다.

5) 사회과학출판사, 「철학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p. 109.

6) 主體思想의 이론적 발전과정에 관한 통시적 분석은 金聖哲, 「主體思想의 理論的 變化」(서울: 民族統一研究院, 1993)를 참조.

역사적 시각에서 볼 때 主體思想은 1950년대와 60년대에 대외자주성 원칙과 혁명적 균중노선을 강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였다. 그후 金日成政權이 점차 안정됨에 따라 지배구조에 대한 논리적 이념체계를 발전시켜 1970년대에는 김일성주의화와 혁명적 수령관을 강조하였다. 특히 1974년 金正日의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가 선포되면서 主體思想에 대한 이론적 정립과 체계적인 교양학습이 실시되었다.

1970년대 중반부터는 소위 ‘인간개조사업’을 통하여 사회주의적 가치와 主體思想을 내면화시키려는 작업을 시도하여 혁명적 동지애와 의리, 집단주의·영웅주의 등이 강조되었고 1975년경에는 ‘주체형의 공산주의자’라는 슬로건을 공개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1979년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으로 이어지면서 주체형의 인간을 만들어 내고자 시도하였다.

1980년대에는 主體思想의 철학적 측면의 체계화가 일단락된 후 인간중심 철학이 더욱 강조되었다. 그리고 1980년대 말 東歐 및 蘇聯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된 시점부터는 민족 개념을 부각시켜 조선민족제일주의를 주장하고, 타 사회주의 체제와의 차별성을 강조하는 우리식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

7) 李鐘奭, “조선로동당의 指導理念과 構造變化에 關한 研究: 主體思想과 唯一指導體系를 중심으로” (成均館大學校 政治外交學科 博士學位論文, 1993), p. 122.

성을 主體思想에 입각하여 이론화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북한의 헌법에 반영되었다. 북한은 主體思想을 1970년대에는 맑스-레닌주의를 창조적으로 적용한 사상이라고 규정해 오다가 1980년에 이르러 맑스-레닌주의로부터 완전히 분리시켜 독립적인 통치이념으로 강조하고 있다.⁸⁾ 더욱이 1992년 4월 9일 개정된 사회주의 헌법에서는 主體思想을 북한의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천명하였다. 즉 개정 헌법 제3조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을 자기활동의 지도이념으로 삼는다”라고 선언함으로써 主體思想은 명실상부한 북한의 지도이념으로 확립되었다.

분석적 차원에서 보면 주체사상은 1982년 金正日이 발표한 “주체사상에 대하여”에 제시된 철학적 원리, 사회역사원리, 지도적 원리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金正日은 주체사상에 대해 “가장 완성된 혁명리론과 전략전술, 령도리론과 령도방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⁹⁾ 이 광범위한 主體思想은 인

8) 북한은 1970년 11월 노동당 제5차 전당대회에서 개정한 당규약에서는 ‘맑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내세웠으며, 1972년 12월 27일 개정된 사회주의 헌법 제4조에서는 ‘맑스-레닌주의를 창조적으로 적용한 조선로동당의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언급하였다. 이것은 1980년 10월 제6차 당대회에서 개정된 당규약에서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이 지도이념으로 강조됨으로써 주체사상을 맑스-레닌주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켰다.

간중심 및 자주성의 철학(인생관), 집단주의 생활원리(조직관), 金日成·金正日에의 충성(수령관),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우리식 사회주의)의 네 분야로 구분해 볼 수 있다.¹⁰⁾ 철학적 측면은 1982년에 이미 체계화되었다고 보며, 1986년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에서는 수령을 뇌수로 한 수령·당·대중의 유기체적 결합을 제시함으로써 金日成·金正일에 충성하는 수령관과 집단주의 생활원리를 이론적으로 보완하였다. 그리고 1991년 ‘우리식 사회주의’를 통해 사회주의 승리와 민족자립경제체제 등의 사회역사원리를 보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內面化

內面化(internalization)란 일반적으로 한 사회의 보편적인 혹은 지배적인 가치가 개인의 가치로 받아들여지는 과정을 일컫는다. 內面化는 사회화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서 자기가 태어난 사회에서 공유되고 있는 보편적인 의미체계를 자아 속의 일부로 형성시키는 과정이다.¹¹⁾ 사회의 공통적 가

9) 김정일,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1986.7.15),”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헌집」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p. 150~51.

10) 주체사상을 인간중심 세계관, 근로대중 집단주의, 절대적 엘리트주의의 세 분야로 구분하기도 한다. 李相禹, 「北韓의 主體思想」 (서울: 통일연수원, 1991), pp. 17~27.

치들이 개인의 인성구조에 內面化되는 이 과정이야말로 그 사회체제를 지탱하는 핵심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내면화는 개인의 태도형성에 있어서 수용자가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부터의 보상을 기대하거나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순응(compliance)이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긍정적인 자기관리를 지향하는 동일시(identification)의 개념보다 훨씬 심층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태를 가리킨다.¹²⁾ 따라서 개인이 사회의 보편적인 가치를 수용하여 자신의 생활과 삶의 준거로 삼고 있는 상태를 內面化된 상태라고 부를 수 있다.

內面化는 사회학과 심리학, 정치학에서 중요하게 사용되는 개념인 사회화(socialization) 또는 政治社會化를 수용자적 입장에서 바라본 것이다. 즉 사회화나 정치사회화는 문제를 사회구조의 차원에서, 체계의 차원에서 접근한 분석인 반면, 內面化는 사회화의 수용자, 즉 행위자의 입장에서 문제를 접근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합리적 선택이론(rational choice theory)이 가정하는 바와 같이 內面化를 개인의 수준에서 요구하는 사회구조적 요인과 정보의 수준에 따

11) 전병재, 「사회심리학」(서울: 경문사, 1981), p. 268.

12) Herbert C. Kelman, "Three processes of social influences," in E. P. Hollander & R. G. Hunt, *Current Perspectives in Social Psycholog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63), pp. 454~62; 전병재, 「사회심리학」, pp. 341~43에서 재인용.

라 달라지는 가변적인 것으로 보는 관점은 설득력 있다.¹³⁾ 합리적 선택이론에 따르면 內面化는 상대적 기준에 불과하며 내면화를 기본 개념으로 보지 않고 여러 가능한 선택대안 중 하나로 간주한다. 즉 내면화 현상을 이념이라는 하나의 요소로 간주하여 이념을 따를 것인지 다른 대안을 선택할 것인지의 문제로 파악한다.

그러나 內面化 현상을 지나치게 개인의 수준으로 환원시켜 설명하는 것은 사회구조의 변화와 역사적 경험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와 무관한 분석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개인의 합리적인 계산과 선택에 의해서 내면화를 설명한다는 것은 역사적 격변기에 혁명으로 세워진 社會主義 社會에서는 더욱 설득력이 떨어진다.¹⁴⁾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포퍼(Popper)나 기든스(Giddens)가 제안하는 제도적 개인주의(institutional individualism)¹⁵⁾의 관점은 內面化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유의하다. 사회구조를 ‘위로부터 아래로’ 행위를 강압하는 총체로

13) 조기숙·이성봉, “북한체제변동의 정치경제학,” 「북한연구」, 제 4권 4호 (1993 겨울), pp. 139~66.

14) 북한의 사회체제는 주체사상(사회), 자주외교(정치), 자립경제(경제), 자위국방(군사)으로 구성된 체계이며 정치지도자나 일반국민의 합리적 선택행위도 이와 같은 구조의 제약을 받고 볼 수 있다.

15) 김용학, 「사회구조와 행위: 거시적 현상의 미시적 기초를 찾아서」 (서울: 도서출판 나남, 1992).

보아 구조와 행위 사이의 하향적 인과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동시에 ‘아래로부터 위로’(bottom up), 즉 반복적이고 지속적이며 행위자가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서의 구조를 인식하는 것이다.¹⁶⁾

따라서 主體思想의 內面化라는 개인적 행위도 사회구조와의 역동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主體思想의 內面化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정치사회화의 반복적인 미시적 상호작용의 결과로 규정되며 동시에 체계와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행위자의 의도치 않은 결과에 영향을 받으며 진행된다.

2. 內面化에 關한 理論的 論議

內面化를 설명하는 이론은 크게 둘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하나는 政治社會化 과정을 통해 내면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이론이며, 다른 하나는 정치사회화를 본질적으로 통제와 강제력에 의존하는 지배관계로 보기 때문에 내면화의 진행은 불완전하다는 이론이다. 전자는 자본주의적 사회

16) A. Giddens, *The Constitution of Society: Outline of the Theory of Structuration* (Californi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4); J. Coleman, "Social Theory, Social Research, and a Theory of Actio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1 (1986), pp. 1309~35.

주의건 간에 어느 체제가 존속하는 배후에는 체제의 가치가 개개인에게 내면화되기 때문이라고 가정하고 어떻게 내면화가 이루어지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이론이다. 반면, 후자는 내면화가 사회전체에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불가능하며 기본적으로 社會統制에 의해서 사회체제가 유지되고 있다고 보고 내면화를 사회통제 및 사회구조와의 역학관계 속에서 분석하는 이론이다.

가. 機能理論

政治社會化 이론으로 통하는 機能理論(functional theory)에 의하면 사회체제가 유지되는 이유는 사회가 통합되어 있기 때문이며, 사회통합은 사회구성원들의 체제가치에 대한 內面化를 근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¹⁷⁾ 파슨즈(T. Parsons)는 내면화는 긍정적인 차원과 부정적인 차원의 두 가지 측면에서 진행된다고 설명하였다. 긍정적 차원의 내면화는 사회성원으로서 개인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사회의 가치, 신념, 언어, 상징과 같은 문화적 유형들을 자신의 신념체계로 내면화하는 것을 말하며, 부정적 차원의 내면화란 여러가지 상벌제도와 통제적 수단을 동원하여 사회의 가치에 순응하도록 만드는 방법을 말한다.¹⁸⁾ 이 관점에 의하면 인간은 사회체계

17) Talcott Parsons, *The Social System* (New York: The Free Press, 1951).

속에서 자발적인 동의든 비자발적 순응이든 간에 사회의 가치를 내면화할 수 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¹⁹⁾

機能理論이 체제의 가치가 내면화된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인생의 가치관과 정치적 정향이 개인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대부분 어린시절에 형성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심지어 인간의 정치적 이해관계는 출생환경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²⁰⁾ 개인의 가치관과 인격형성은 어린시절에 가족과 학교교육, 동년배 집단의 사회화 과정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시기에 대부분의 가치정향이 고착화되며, 이렇게 형성된 가치정향은 성인기의 새로운 생활환경에서도 동일하게 존속하기 때문에 정치적 규범이 질서정연한 기반 위에서 세대간의 전수도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北韓은 특히 유아교육과 학과과정의 상당부분을 주체사상 교양에 할애하여 취학전 교육과 반복학습을 통해 사상교육

18) 이스튼(D. Easton)과 데니스(J. Dennis)의 체제존속이론(system persistence theory)도 이러한 맥락에서 볼 수 있다. 즉 체제가 존속하기 위해서는 내면화와 강압적 사회통제가 각각 어느 정도일 때 체제가 적절히 유지되는가 하는 것이 관건이 된다.

19) Peter L. Berger, *Invitation to Sociology*, 한완상 역, 「社會學에의招待」(서울: 현대지성사, 1977), 제4장.

20) Robert E. Lane, *Political Ideology* (New York: Free Press, 1962), chap. 17.

을 시키며,²¹⁾ 소년단과 사로청 등의 청소년 조직을 이념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北韓은 유치원교육의 일부분을 의무교육화함으로써 조기에 정치이념을 아이들에게 반복·주입시키는 정책을 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신문과 방송 및 영화 등 모든 매체를 政治社會化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실천교육의 중요성을 들어 여가활동도 정치사회화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입장을 행위자의 입장에서 미시적으로 설명하는 이론들이 정신분석학, 학습이론, 역할이론 등이다.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은 개인의 성격과 태도가 性的 갈등기인 만 4-5세에 이디프스 단계를 극복·처리하는 방법 내지 경험에 의해 결정되는데, 특히 이 시기의 갈등은 부모와의 동일시화(identification)로 해소되는 경향이 크다고 주장한다. 즉 자식은 부모가 선호하는 정치지도자나 정당을 지지함으로써 초강력한 존재가 주는 긴장과 불안을 동일시화의 방법으로 해소한다고 주장한다.²²⁾

21) 통일원, 「북한개요 92」 (서울: 통일원, 1992), pp. 332~33; 李宇榮, 「北韓 政治社會化에서 傳統文化의 役割」 (서울: 民族統一研究院, 1993), pp. 20~21.

22) Angus Campbell et al., *The American Voter* (New York: John Wiley & Sons, 1960), pp. 146~49.; Philip Converse and Georges Dupuex, "Politicization of the electorate in France and the United States," *Public Opinion Quarterly*, 26 (Spring 1962), pp. 23~30;

· 학습이론도 機能理論의 관점에서 內面化를 설명하는 미시적 이론으로서 중요하다. 파블로프(Pavlov)와 스키너의 학습이론에 의하면 개인의 정치정향은 사회화의 판단능력이 없는 아동기에 자극-반응이라는 조건반사적 사회화를 통해 학습된다는 것이다. 정치체제의 경우, 구체적으로 유익한 정책을 제공하여 시민으로부터 추종을 유도하면서 이것을 상징과 제도에 연결시킨다. 그러면 이 조건화된 자극에 대한 반응, 예를 들면, 국가, 조국, '우리 정부형태'에 대한 존중 등은 간헐적인 정책적 보상을 가지고 충분히 유도할 수 있게 되어 마침내 그 상징과 제도들은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게 된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어떤 최초의 강화가 없어도 상징과 제도를 추종하게 된다.

역할이론(role theory)과 인지발달이론(cognitive development theory)도 內面化 가설을 뒷받침한다. 유아나 아동기에 사람은 자기 주위 사람들의 행동을 모방함으로써 사회적 존재로 발달해 간다. 유아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역할을 배우며 주관적 자아인 나(I)와 사회적 존재로서의 나(me)를 구분하면서 사회일반의 규범을 인지하기 시작한다. 미드(G.H. Mead)는 사회일반의 도덕규범, 즉 '일반화된 타자'(generalized

Akira Kubota and Robert E. Ward, "Family influence and political socialization in Japan,"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3 (July 1970), pp. 140~75.

others)가 국민학교 3, 4학년경까지는 內面化된다고 보았다. 피아제(Piaget)는 아동의 정치적 정향 습득이 발달과정의 ‘단계’에 따른 인지적 능력에 달려있기 때문에 정치학습의 특수한 유형은 각 단계마다 적절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²³⁾ 이러한 개념은 연령군에 따라 특징적인 정치정향들을 분석하는데 유용하다고 볼 수 있다.

나. 葛藤理論

葛藤理論(conflict theory)에 의하면 사회는 지배집단과 피지배집단이 대립·갈등하는 관계로 구조화되어 있으며 政治社會化를 통한 內面化의 시도는 정치권력을 장악한 지배집단이 그들의 정치를 공고히 하기 위해 상징을 조종하고 선전과 검열을 이용하기 때문에 정치적 가치와 태도가 내면화되지 않고 갈등이 잠재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이론에 의하면 항상 체제로부터 이익을 보는 자와 손해를 보는 자가 있는데 사회화는 손해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것을 당연하게 받아 들이고 심지어는 이익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기득권자들의 음모일 따름이다. 지배집단은 추종집단으로 하여금 통제관계를 유지하는 사회가치를 수용하게 하

23) Joseph Adelson and Robert P. O'Neill, "The growth of political ideas in adolescence: the sense of commun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 (July 1966), pp. 295~306.

는데 사회화를 이용한다.

이 과정에서 지배집단은 강제력과 동의를 적절히 활용한다.²⁴⁾ 지배집단은 언제나 강제력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지만 조직화된 동의 역시 필요로 한다. 즉 자연발생적인 합의로서의 동의를 창출하기 보다는 강제력에 의해 조직화된 승인 내지 묵인을 유도해낸다. 따라서 강제력에 의해 조직화된 동의를 정치적·사회적 문제에 확산시키고 특정 생활양식을 갖도록 교육시킨다.

葛藤理論의 관점에서 보면 政治社會化는 지배계급이 상징 조작이나 선전 및 검열제도 등을 통해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피지배계급에게 주입시키는 과정에 불과하다. 政治社會化를 담당하는 기관들은 대개 보수정당, 교회, 기업, 매스미디어, 교육기관 등으로 지배계급에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지적한다.²⁵⁾ 따라서 정치사회화는 특정계급의 이익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 葛藤理論의 입장이다.

葛藤理論이 지적하는 政治社會化를 통한 내면화의 문제점은 주로 자본주의 사회를 염두에 두고 분석한 것이지만 사

24) 최장집, “그람시의 헤게모니 개념,” 「국가이론과 분단한국」(서울: 한울, 1990), pp. 40~41.

25) R. Miliband, *The State in Capitalist Society* (London: Weidenfeld & Nicolson, 1969); 김경웅, 「정치교육론」(서울: 유풍출판사, 1982).

회주의 사회에도 적용해 볼 수 있다. 밀리반드(R. Miliband)가 政治社會化에 대해 “자본주의의 사회적 질서와 제반가치를 강화하는 대중의 교화과정”이라고 주장한 비판적 시각을 사회주의 사회에 연장시켜 적용해 본다면 社會主義 政治社會化 역시 소수의 권력엘리트들이 사회주의의 사회적 질서와 제반가치를 대중에게 교화시키는 과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사회주의 체제는 전체주의적 억압과 통제로 정치사회화를 강요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체제의 공식이데올로기인 맑스-레닌주의를 표면적으로 신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적으로는 동의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分析틀

앞에서 설명한 두 이론을 중심으로 主體思想의 內面化 연구를 위한 분석틀을 구성해 본다. 우선 主體思想은 機能理論에서 설명하듯이 가족과 학교교육, 대중매체 등 북한체제의 사회화 기제를 통하여 자발적 동의 형태로 내면화되며, 동시에 적절한 사회통제를 통하여 내면화가 긍정적으로 진행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葛藤理論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내면화되지 않고 이원적인 상태로 잠재되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잠재성은 사회경제의 구조와 역사적 경험 등의 조

건에 따라 내면화되기도 하고 내면화를 거부하기도 한다. 즉 실질적인 내면화의 진행은 사회체계의 의도적인 政治社會化 機制(자발적 동의, 조직화된 동의, 강제력)만을 통해서는 불가능하며 사회경제적 환경이 뒷받침될 때에 가능하다. 따라서 사회전체가 경험하는 '동기화'가 사회화의 내용과 일치할 경우에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내면화를 촉진시키지만, 사회화의 내용과 사회구조 사이에 괴리가 발생할 경우에는 공식적 사회화의 메커니즘을 통하여 전달되는 사회가치는 내면화되지 못하고 단절이 일어난다. 특히, 제3세계 국가들에서와 같이 근대화와 산업화, 민족국가 건설이 급격하게 이루어진 사회에서는 아동기의 사회화의 한계는 뚜렷하며 이는 종종 세대 간의 단절현상으로 나타난다.²⁶⁾

內面化를 일으키는 사회적·역사적 사건으로 전쟁을 비롯하여 현대사회에서 쟁점이 되는 환경문제, 민족주의 문제 등 정치경제적 조건을 들 수 있다.²⁷⁾ 전쟁은 가장 직접적으로 정

26) Dean Jaros, *Socialization to Politics* (New York: Praeger Publishers, 1973), 林永喆·金恒元 공역, 「政治社會化」(서울: 地球出版社, 1986), p. 101. 각 세대들은 그 역사적 사건들이 주는 독특한 인상 때문에 비슷한 정치적 성향을 갖게된다. 예컨대 미국의 경우 1930년대의 대공황과 같은 역사적 사건은 소위 '대공황 세대'를 만들어 내어 이들은 민주당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

27) Jaros, *Socialization to Politics*, 林永喆·金恒元 공역, 「政治社會化」, pp. 103~04.

치체제에 대하여 능동적이며 파괴적인 적개심을 동반하는 사회화의 수단이 된다.²⁸⁾ 뿐만 아니라 민족주의 문제나 환경문제 등은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새로운 각도에서 內面化의 가치체계에 영향을 미친다. 현대세계는 핵무기의 광범위한 확산으로 막강한 파괴능력을 갖게 되고 국제경제 및 사회문화적 상호관계가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서 환경문제와 민족주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필요로 한다.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정보의 통제 때문에 이러한 갈등이 적지만 국제사회에 대한 정보가 개방되면 객관적 사실이 알려짐으로써 기존의 內面化된 가치체계에 회의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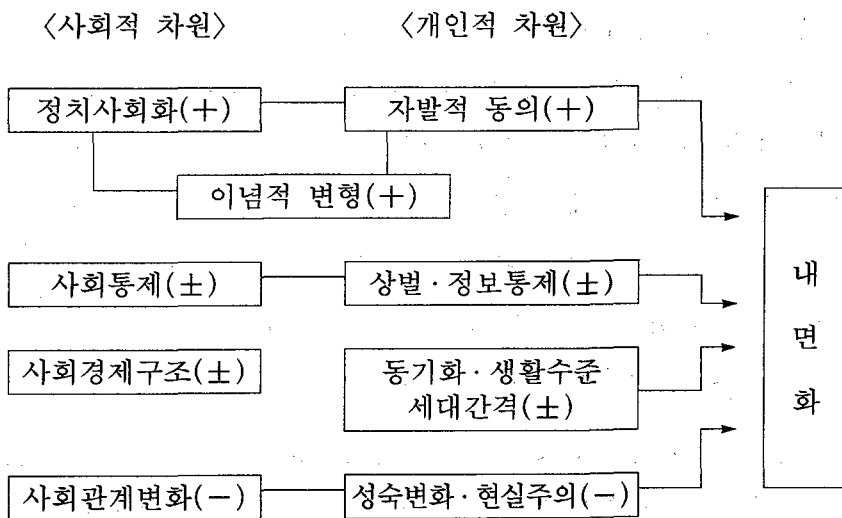
여기에 개인의 社會關係 변화에 따른 성숙변화를 첨가하고자 한다. 개인의 성숙에 따라 사회관계가 넓어지고 이로 인해 사회에 대한 가치가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가 안정되고 단순할수록 나이에 따른 개인의 환경변화는 가치와 태도변화에 큰 역할을 한다. 이러한 점에서 결혼과 사회생활

28) 이러한 예로 체코의 경우,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에 의하여 정치적으로 사회화되었지만 1차세계대전으로 이 사회화가 완전히 무너졌으며, 일본의 경우도 어린이들이 황제가 신성한 정치적 인물이었다는 것을 수세기 동안 배워왔으나 2차대전에서의 군사적 패배, 정치체제의 실질적인 폐지, 미군의 점령 등 전적으로 다른 사회상황과 정치제도를 경험함으로써 새로운 사회화를 경험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전쟁도 주체사상이 북한주민들에게 내면화될 수 있는 사회심리적 토양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경험은 어린시절 內面化된 가치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변수가 된다.

이상의 논의를 도식으로 표시하면 <그림 2-1>과 같다. 이 도식에 의하면 內面化는 사회적 차원의 변수와 개인적 차원의 변수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다. 정치사회화, 사회통제, 사회경제 구조, 사회관계 변화라는 네 가지 사회적 변수가 개인의 內面化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주면서 변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政治社會化는 자발적 동의를 목표로 主體思想을 내면화시킨다.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와 달리 사회화를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실시하여, 학교교육은 물론 성인의 사회화도 엄격하고 철저하게 시행

<그림 2-1> 주체사상의 내면화 분석을 위한 모형



함으로써 內面化를 유발한다. 그러나 사회관계의 변화는 개인의 성숙변화와 함께 현실주의를 추구케 함으로서 내면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한편, 社會主義 體制에서 사회통제는 단순히 상벌이라는 행위통제를 넘어서 정보통제에까지 미침으로써 개인이 사회주의 이념에 충실하도록 조정한다. 즉 각종 언론출판 매체의 통제를 통하여 국내정보를 차단할 뿐만 아니라 체제외부로 부터의 정보유입을 차단하는 것을 포함한다. 사회주의 체제는 맑스-레닌주의 이념이 문화체계를 완전히 대체하여 사회통제가 밀도있게 이루어지는 사회로 볼 수 있다.²⁹⁾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치이념은 서로 다른 계급들의 도덕관이 자주적으로 수렴되어 정립되는 반면,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맑스-레닌주의 사상만이 획일적인 지배이념이 되며 다른 사상과 가치는 엄격히 통제된다.

특히 최근 동유럽 社會主義 붕괴 이후 북한과 같이 사회화의 내용과 사회구조 간에 간격이 발생할 경우 사회통제는 이념의 변형과 함께 內面化 유지를 위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개방적 문화체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사회화의 내용과 객관적 사실 간에 괴리감이 크지 않지만, 사회주의 사회는 폐쇄문화체계 속에서 사실을 주관적

29) David Lane, *The Socialist Industrial State: Towards a Political Sociology of State Socialism* (Boulder, CO: Westview Press, 1976).

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객관적 사실과 사회화의 내용 간에 괴리가 크다. 따라서 외부환경에 대한 정보가 개방되면 될수록 체제차원에서는 사회화의 메커니즘을 통하여 변화된 현실에 대한 납득할만한 ‘이념의 변형’을 제시해야 한다. 북한은 국내외적인 환경에 따라 主體思想의 내용을 탄력적으로 변화시키면서 내면화를 위한 政治社會化를 시도해 왔다. 그렇지 않을 경우 내면화 과정에 심각한 갈등이 발생하며 개인은 기존의 이념을 따르지 않고 ‘합리적’ 선택에 근거하여 다른 대안을 선택할 수도 있다.

第 Ⅲ 章 主體思想 教養體系와 內面化 過程

1. 北韓의 社會體制와 政治社會化

가. 體制存續과 思想學習

社會主義 體制는 맑스-레닌주의 이념이 문화체계를 완전히 대체하여 社會統制가 밀도있게 이루어지는 사회라는 점을 앞에서 지적하였다. 북한도 主體思想을 국가의 유일한 지도이념으로 내세워 체제를 유지해 나가는 이념중심의 사회이다. ‘정치사업,’ ‘정치사상사업,’ ‘정치사상교양,’ ‘사상교양,’ ‘사상사업,’ ‘주체사상교양’ 등의 수많은 용어는 북한 사회체제의 골간이 사상과 이념임을 보여준다.

이같은 이념중심의 사회체제를 지탱하기 위해 사회성원들에 대한 思想學習은 필수적이다. 북한체제의 근간을 이루는 勞動黨은 “사람과의 사업”과 “주체사상에 의한 사상의지적 통일단결을 단속 강화”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꼽고 있다.³⁰⁾ 勞動黨의 최우선적 기능과 역할은 조직사업 및 사상사업에 두고 있으며, 이 중 사상사업은 사상통제와 사상교양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사상학습은 북한사회에서 필수적인 의무로 간주되고 있다.

30) 「조선로동당규약」 전문.

金日成은 사회주의 건설 초기부터 주민들의 사상의식 분야에서 혁명적 변화를 강조하고 구습타파와 관료주의 퇴치 및 사상의식 개변을 위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1948년 제2차 黨대회(1948.3)와 뒤이은 민청 3차대회(1948.11.13)에서는 사상교육의 방향을 맑스-레닌주의로 무장, 노동과 건설을 통한 난관극복, 반미·반일사상 고취,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과학기술교육 등 다섯 가지로 제시하였다.³¹⁾ 초기의 정치사회화는 반제·반봉건적 민주주의 혁명, 즉 일제치하의 관료주의 등의 폐습을 타파하고 다른 한편으로 맑스-레닌주의 이론에 충실하여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을 위한 정신무장에 역점을 두었다.

韓國戰爭 이후 전후복구사업을 추진해 나가면서부터 북한은 사회체제 전반의 수정과 함께 정치교화의 기본방향과 교과과정을 전면 개편하였다. 한국전쟁을 계기로 소련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중국의 영향력이 증대됨으로써 북한 내에서는 8월종파사건이 발생하는 등 정치사상적 혼란이 발생하였다. 이 시기 학습의 기본방향은 계급교양의식 고취로 특징지을 수 있다.³²⁾

31) 김일성, “청년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은 민청단체들의 기본 임무,” 「김일성저작집 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pp. 482~88.

32) 김일성, 「김일성저작집 1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1958년 사회주의 개조가 완성되면서 사회주의·공산주의 우월성과 애국주의교양이 매우 강화되었다. 金日成은 1958년 11월 전국 시, 군 黨위원회 선동원들을 위한 강습회에서 행한 연설 “공산주의 교양에 대하여”를 통하여 사회주의 제도가 완수된 다음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지속적인 건설을 위해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개조할 필요성과 그 내용에 대해 언급하였다.³³⁾ 당시 학습교재로 가장 많이 사용된 것은 金日成著作과 「항일 빨찌산 참가자들의 회상기」로, 1959년부터 연속으로 발간되기 시작한 「항일 빨찌산 참가자들의 회상기」 전12권은 각 직장의 학습조나 연구토론회, 감상모임 등을 통해 주제별로 장기간 학습·발표·토론의 순환과정을 거친 최고의 학습교재였다.

사상교양을 위한 학습체계는 유일체계 수립이 논의되기 시작한 1960년대 초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되었다.³⁴⁾ 主體思想이 확립되기 이전인 196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이론 학습이 병행되었고 맑스-레닌주의를 아는 것이 오히려 인테리의 자격기준이 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유일사상교양과 계급교양이 병행되었다. 그러나 유일체계 수립이

pp. 597~99.

33) 김일성, 「김일성저작집 12」, p. 591.

34) 이종석, “유일체제의 수립과정,” 장을병 외 지음, 「남북한정치
의 구조와 전망」 (서울: 한울, 1994), pp. 339~41.

시도된 1967년부터 모든 문제판단의 최종심의회는 金日成著作으로 귀착되었고, 특히 「김일성저작선집」을 새롭게 출판하여 모든 사상이론적인 문제나 사업지침으로 사용하였다. 뿐만 아니라 대중의 사상교양 학습과정에서는 勞動黨과 國家, 그리고 金日成을 동일시함으로써 지도자에 대한 신성화, 절대화를 추구하였다. 사상교양학습체계를 통하여 북한은 金日成(수령)과 대중 사이에 공통의 정서영역을 만들어냄으로써 1960년대 중·후반부터 강조된 首領에 대한 무조건적 충실성을 대중이 사회적 담화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바탕을 마련하였다. 결국 김일성저작선집 학습은 빨찌산 회상기 학습에서 획득된 새로운 정서와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유일체제의 기본특징인 개인숭배를 발효시키는 사상문화적 기반이 된 것이다.

북한은 1974년 유일사상체계를 확고히 하기 위한 방편으로 「유일사상체계확립의 10대원칙」³⁵⁾을 하달하고 사상학습을

35)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가 1974년 출판한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기 위하여 목숨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2.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충성으로 높이 우러러 모셔야 한다.
3.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권위를 절대화하여야 한다.
4.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신념으로 삼고 수령님의 교시를 신조화하여야 한다.

조직적으로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에는 ‘온사회의 주체사상화’를 목표로 唯一思想과 主體思想 무장을 강화하였다. 이전의 인민반과 사회단체, 그리고 각 직장의 연구모임 중심의 사상학습은 주총화학습, 수요강연회, 월요학습침투 등 조직적인 학습활동으로 발전하였고 조직별 학습활동도 한층 강화되었다. 그 결과 이 시기부터 북한주민들은 ‘학습의 연속’이었다고 회고할 정도로 1주일 단위로 체계적인 학습이 강도 높게 진행되었다.³⁶⁾

1980년대에는 金日成主義化를 교양하기 위한 방향으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 학습활동은 金正日이 인민생활향

-
5.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 집행에서 무조건성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6.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중심으로 하는 전당의 사상의지적 통일과 혁명적 단결을 강화하여야 한다.
 7.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따라배워 공산주의적 품모와 혁명적 사업방법, 인민적 사업작풍을 소유하여야 한다.
 8.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안겨주신 정치적 생명을 귀중히 간직하며 수령님의 크나큰 정치적 신임과 배려에 높은 정치적 자각과 기술로써 충성으로 보답하여야 한다.
 9.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유일적 령도밑에 전당, 전국, 전군이 한결같이 움직이는 강한 조직규률을 세워야 한다.
 10.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계승하며 완성하여 나가야 한다.

36) 1970년대 초에는 예술분야 등 부분적으로 1일총화를 실시한 적도 있다.

상과 실용주의 정책을 제시하며 북한사회의 표면에 등장한 1984년부터 다소 느슨해졌다. 일주일에 한번씩 실시하던 주총화학습을 한달에 한번으로 대폭 축소하였고, 종이가 부족했던 탓도 있었지만 主體思想학습 노트도 각 과목당 한권씩 총10권의 노트를 쓰게 했던 것이 한 노트에 2~3과목을 겸용하도록 함으로써 1인당 노트도 3~4개로 줄어들었다.

社會主義圈의 崩壞가 확산될 무렵인 1991년부터 다시 1주일에 1회씩으로 생활총화를 하도록 정책을 재정립하였다. 1991년 12월 金正日의 지시로 자본주의적 병폐현상을 시정하기 위한 「비사회주의 그루빠」³⁷⁾가 조직되면서 학습활동은 더욱 강화되었다. 金正日은 “혁명운동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사상의식이 결정적 역할을 하는 만큼 혁명과 건설에서 반드시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나가며 인민대중의 자각성과 적극성을 높이기 위한 사상개조사업, 정치사업을 모든 사업에 앞세워야 한다”고 주장하며 思想教養優先主義를 내세워온 것이다.³⁸⁾ 이처럼 북한 사회체제는 설복과 교양, 정치도덕적 자극, 물질적 자극 등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주민들의 사상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사상학습을 지속해 나

37) 북한은 1993년 하반기에 이에 대한 ‘마감총화’를 지역별, 부문별로 실시하고 일단 마무리지었다.

38)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헌집」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 61.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체제이다.

나. 學習活動과 社會統制

主體思想教育은 북한의 두뇌에 해당하는 黨 組織部와 宣傳煽動部에서 관장하며, 주체사상교육을 직접 담당하는 곳은 黨 선전선동부 교양과이다. 黨 조직부와 선전선동부는 공식·비공식 통제채널을 이용하여 주민들의 학습활동을 효과적으로 관리한다. 黨 선전선동부 교양과는 주체사상 학습을 1년 단위로 반복적으로 실시하며, 학습교재도 1년을 단위로 새롭게 내용을 변경하는 등 체계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

북한에서 학습은 그 자체가 하나의 統制手段이다. 사회의 외부로부터 정보를 차단하는 것을 '외적 통제'라고 한다면 사상학습활동은 대내 통제조직과 연결되어 북한주민들을 안으로 단속하는 소위 '내적 통제'의 메커니즘으로 활용되고 있다. 학습이 內的 統制의 근간이 되고 있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북한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黨을 제외한 각종 社會團體(사로청, 직맹, 여맹, 농근맹, 소년단 등)와 주민조직(동·리 인민반, 작업반·분조), 그리고 黨조직 체계를 이용하여 주민들의 사상성을 고취시키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이를 결합시키는 중요한 통제 메커니즘이 되고 있다.

둘째, 학습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각종 출판물과 연

극, 영화 등 대중매체를 이용함으로써 선전·선동을 강화하고 외부와의 정보접촉을 차단하며 세대간·지역간의 이동을 최대한 제한시킴으로써 사상성 약화를 방지한다. 뿐만 아니라 “8시간 노동, 8시간 휴식, 8시간 학습” 목표를 내세워 과외시간을 거의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다른 생각을 할 여유를 갖지 못하게 한다.

셋째, 학습활동을 통해서 북한주민들이 內面化하는 궁극적인 규범은 「유일사상 10대원칙」의 실현에 있다. 이는 마치 기독교에서 수많은 율법이 「10계명」으로 축약되어 기독교인들의 도덕생활을 통제하고 있듯이 북한의 「10대원칙」도 북한사람들의 내면세계를 강력히 통제하고 있다. 이 「10대원칙」은 복잡하고 철학적인 생활지침을 직접적 행태로 구체화하여 인민들의 교리로 제시되고 있으며, 이는 어떠한 행위도 단속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내적 통제’의 실제적 근거가 되고 있다.

2. 主體思想 學習體系

가. 兒童·靑少年의 學習活動

主體思想에 대한 구체적인 이론학습은 고등중학교부터 실시되지만 취학전 및 인민학교에서도 金日成·金正日의 덕성 교양을 중심으로 主體思想 이념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1) 就學前 兒童學習

북한에서의 학습은 태어나면서부터 시작된다. 가정은 인간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접하는 사회로, 북한은 가정이 사회화의 가장 원초적인 단위라는 점을 인정하고 家族讀報會 실시를 장려함으로써 유아들의 內面化를 꾀하고 있다. 가정은 대개 기성세대인 부모들이 사회화를 담당함으로써 기성세대의 부정적 가치관이 주입될 가능성이 크지만 부모들의 체제 순응적 가정교육³⁹⁾으로 말미암아 어린이들에게 사회의 공식 이데올로기가 전달된다고 볼 수 있다.

가정교육 이외에 만3세까지 어린이는 탁아소에 맡겨지며 부모가 없는 고아나 부모의 보살핌을 받을 수 없는 어린이들은 육아원이나 보육원에서 성장한다. 그리고 만4세가 되면 유치원 낮은반에 입학하게 되고 만5세가 되면 높은반으로 진학한다. 북한전역의 약 3만여 개의 탁아소와 2만여 개의 유치원은 취학전 아동학습의 핵심기구라고 할 수 있다.

탁아소에서는 말을 알아듣고 배우기 시작하는 만2세 정도에 이르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사탕이나 장난감을 주면서 “아

39) 예를 들어, 러시아 혁명당시 부모들은 새로운 혁명정부의 근본 방침을 지지하거나 존경하지 않으면서도 아이들은 훌륭한 소련의 시민으로 만들려는 목적으로 정치체제를 전복하는 대신 그 체제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도록 사회화하였다. Alex Inkeles, “Social change and social character: The role of parental mediation,” *Journal of Social Issues*, 11 (May 1955), pp. 12~13.

버지 원수님 고맙습니다,” “김일성 원수님 감사합니다”를 따라하도록 반복시킨다. 따라서 北韓의 어린이들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배우는 말은 수령님, 원수님, 아버지 김일성이다. 유치원은 탁아소보다 더 체계적으로 조직규율을 강조하며 집단주의적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유치원에 제공되는 모든 물품은 首領과 黨이 배부하는 것으로 교육하고 식사나 간식시간에는 金日成에게 감사하다고 복창하도록 한다. 이와 같은 교육을 통하여 인간생존에 필수적인 의식주가 金日成으로부터 공급된다는 점을 주입시킴으로써 金日成에 대한 고마움과 충성심을 자연스럽게 유발시킨다. 이들은 사회화의 판단능력이 없는 유아기에 자극-반응이라는 조건반사적 사회화를 통해 金日成·金正日 이상화를 학습한다.

북한은 어려서부터 집단생활에 익숙해야만 집단주의 사고방식과 생활습관이 용이하다는 취학전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1970년 勞動黨 제5차대회(1970.11.2)에서 6개년계획기간 내에 북한의 모든 어린이를 ‘사회적으로’ 양육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 결정에 따라 1972년 유치원 높은반을 포함한 11년 의무교육제를 시행한데 이어 1976년 6월 「어린이 보육교양법」을 공표하였다.⁴⁰⁾ 북한은 일찍부터 金日成·金正日의

40) 「어린이 보육교양법」 제2조에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모든 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운다”고 명시함으로써 출생시부터 학교에 가기 전까지의

어린시절을 따라 배우도록 함으로써 우상숭배의 의식교양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실제로 어린시절의 정치사회화 교육은 사회의 일반적 가치를 자아의 일부로 흡수, 內面化시키는 중요한 시기이며, 일찌기 프로이트, 미드, 에릭슨 등의 社會心理學者들은 사람의 핵심적인 가치관은 대개 유아·아동기의 어린시절에 습득되며 이는 일생 동안 크게 바뀌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북한의 체계적인 탁아소·유치원 교육은 유아시기에 집단주의적 가치를 학습시킴으로써 전통·유교적 가족주의 혹은 기성세대의 낡고 퇴색한 가치의 오염으로부터 차단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들을 가정으로부터 일찍 격리시켜 社會主義 制度와 밝은 미래, 집단주의 정신, 노동정신, 애국심 등 사회주의적 제 가치관과 革命的인 組織生活의 기풍을 주입시킴으로써 혁명의 계승자·후비대로 키워가고 있는 것이다.

모든 어린이를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키우도록 제도화하였다. 아동교육을 국가적으로 제도화한 또 다른 이유는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여성노동력 활용이라는 측면도 있다. 「어린이 보육 교양법」 제6조 참조.

(2) 學校教育

유치원에서 2년 과정을 마친 어린이들은 만6세에 인민학교에 입학한다. 인민학교에서는 “후대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견결한 혁명가로, 지덕체를 갖춘 공산주의적 새인간”⁴¹⁾으로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있다. 특히 1977년 勞動黨 제5기 4차 전원회의(1977.9.5)에서 金日成이 발표한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에 입각한 4대원칙, 즉 양성·노동계급성 구현, 주체확립, 혁명·실천결합, 국가책임을 목표로 깨우쳐주는 교수법,⁴²⁾ 이론-실천 결합, 조직생활 및 사회정치활동 강화,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의 연계, 평생교육(성인교육) 강화 등 5대방침을 학습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인민학교 교육내용은 「사회주의 교육테제」의 교육방침에 입각하여 이데올로기 교육과 실습활동이 매우 강조되고 있다. 인민학교 4년 동안 金日成·金正日의 우상화 및 공산주의 사상교육과 관련된 교육시간은 전체의 44%를 차지하고 있으며, 1990년 평양 교육도서출판사가 발행한 인민학교의 국어교과서의 경우, 국어 본래의 영역인 문법, 어휘,

41) 북한 사회주의 개정헌법 제43조.

42) 이는 북한이 “긍정적 모범으로 감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교육의 기본방법으로, ‘문답식 학습방법’이나 각종 “항일혁명열사들의 투쟁,” “누구누구를 따라 배우자”는 등의 학습방법이 그 예이다. 이와는 반대로 부정적인 주제로 교육시키는 예로는 대미, 대일 적개심 고취 등을 들 수 있다.

문장 등 언어생활에 관한 단원은 33%에 불과한 반면, 나머지 67%는 政治思想性을 강조하는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⁴³⁾ 북한의 어린이 동화책의 내용도 전체의 73.1%가 집단주의, 金日成에의 충성, 주체성, 혁명의식 등 정치사상적 내용을 담고 있으며, 성실과 근면, 효도, 절약, 우정 등의 비이데올로기적 내용은 26.9%에 불과한 실정이다.⁴⁴⁾ 북한의 아동교육은 교육시간 혹은 교육내용 어느 측면에서 보더라도 지나친 이데올로기 편향성을 띠고 있다.

인민학교의 구체적인 교과과정은 1, 2학년에서는 국어를 비롯하여, 수학, 체육, 음악, 도화공작,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원수님 어린시절, 공산주의 도덕의 7개 과목과 특강으로 구성되어 있고, 3학년은 자연, 4학년은 위생독본이 추가된다. 인민학교 1학년에 입학한 어린이는 제일 먼저 제1과 「보고 싶은 원수님」을 배우면서 “원수님의 사진은 언제봐도 기뻐요. 우리모두 보고싶은 김일성원수님”을 암기해야 하고,⁴⁵⁾ 제7과 「입학하는 날」과 제14과 「짧은 글짓기」 단원에서도 “아버님 원수님을 모시고 입학날을 즐기는 우리의 마음은 훨훨

43) 남북문제연구소, 「교과서를 통해서 본 북한」(서울: 남북문제연구소, 1994), p. 55.

44) 박영옥, “북한의 지배이데올로기와 초기 정치사회화: 사회화 매체를 중심으로,” 1993년도 후기 사회학대회 발표논문 「요약집」, p. 207.

45) 남북문제연구소, 「교과서를 통해서 본 북한」, p. 57.

하늘로 날아 오를 것만 같습니다,” “우리는 짧은 글을 하나 지어도 아버지 원수님과 친애하는 지도자 선생님을 우러러 받드는 마음이 나타나게 지어야 합니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4학년의 경우, 국어 제1과에 「수령님의 만수무강 축원합니다」라는 단원에서는 “하늘 땅의 끝까지 따릅니다. 해와 달이 다하도록 모시립니다. 수령님의 그 은혜 길이길이 전하며 일편단심 충성을 다하립니다”라며 투철한 충성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어린시절」이라는 과목에서는 金日成의 항일무장투쟁활동을 미화한 이른바 ‘혁명전통교양’을 삽입함으로써 金日成이 인민학교 시절부터 남다른 식견과 투철한 혁명정신을 갖고 있었다고 주입하는 등 우상화 내용을 교육한다. 최근에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선생님 어린시절 이야기」라는 교과목을 인민학교의 정규과목으로 개설하여 金正日 偶像化教育도 실시하고 있다.

한편 北韓은 이론과 실천을 병행한다는 교육방침으로 ‘일하면서 배우자!’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실습활동을 장려하는 등 인민학교 어린이들을 노력동원에 이용하고 있다. ‘농촌지원,’ ‘경제건설,’ ‘좋은 일하기 운동,’ ‘꼬마계획,’ ‘선전대활동,’ ‘자연개조사업’ 등 여러 가지 운동을 통하여 아동들의 노동력을 활용한다. 즉 ‘꼬마계획’에서는 폐품수집, 노력봉사활동 등을 통해 ‘소년호 열차,’ ‘소년호 비행기,’ ‘소년호 땅크,’ ‘소

년호 트락토르' 헌납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밖에 학기중에는 金日成 전적지 답사를 실시하고 방학중에는 농촌일손돕기에 나서기도 한다.

북한의 아동학습에는 소년단⁴⁶⁾활동과 같은 조직생활과 단체생활이 필수적이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인민학교 2학년에서 들어서면 모든 어린이는 소년단에 가입,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현재 3백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는 소년단에 대해 金正日은 “〈소년단원들은 당의 참된 소년근위대, 결사대가 되자〉 이것이 현시기 우리 당이 소년단원들 앞에 내세우는 전투적 구호이다. 소년단원들은 이 구호를 높이 들고 당에 끝없이 충실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아동·소년들을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자로 고무시키고 있다.

북한은 어려서부터 黨과 首領이 위대하고 조국이 위대함을 잘 알아야 커서도 黨과 首領만을 믿고 따르며 조국을 위하여 몸바쳐 싸울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모든 어린이들이 “경애하는 아버지 김일성 대원수님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선생님을 마음의 기둥으로 삼고 살며 자라나도록” 교양사

46) 소년단은 새날소년동맹과 항일아동단의 전통을 이어나가기 위해 1946년 6월 6일 김일성이 창립했다고 하는데, 북한은 매년 6월 6일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전국에서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는 등 소년단 명절로 지킨다. 현재 인민학교 2학년부터 고등중학교 중등반까지(만 7~13세)의 소년·아동들로 조직되어 있다.

업을 늦추지 않고 있다. 북한의 어린이들은 과거에는 ‘경애하는 아버지 김일성원수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김정일선생님’이라고 불렀으나 1992년 2월 金正日의 50회 생일행사로 열린 소년단 연합 단체대회를 계기로 金日成에게는 ‘자애로운 할아버지 김일성원수님,’ 金正日에게는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일선생님’라는 호칭을 바꾸어 사용하고 있다.

金日成·金正日을 따라배우기 위한 구체적 활동으로 북한의 어린이들은 金日成의 출생지를 기리는 ‘만경대고향집찾기 운동’과 金日成의 어린시절의 행적을 따라하는 ‘배움의 천리길,’⁴⁷⁾ ‘광복의 천리길’⁴⁸⁾ 답사행군 등을 전개함으로써 金日成에 대한 충성심을 제고시키고 있다.

이처럼 북한은 아동교육을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조기교육과 반복교육 및 덕성교육을 통하여 金日成·金正日에 대한 충성심과 조직생활을 학습시키고 있다.

고등중학교에서부터는 主體思想에 대해 이론적인 기초학습을 시작한다. 고등중학교 교육정책이 지향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黨

47) 김일성이 12세때 양강도 포평에서 만경대까지 걸었다는 길을 말한다.

48) 김일성이 14세때 만경대에서 만주 팔도구까지 걸었다는 길을 말한다.

의 사상, 이론, 방침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다방면적인 지식을 가진 우리 혁명의 믿음직한 후비대로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하여 主體思想理論을 배운다. 사상교육을 위한 학습과목으로는 ‘현행 당정책,’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 혁명활동,’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 혁명력사,’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 혁명활동,’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 혁명력사’ 등 5개 과목이다. 고등중학교 교과과목에서 차지하는 비율만을 가지고 보면 전체과목의 25%로 많지 않은 것 같으나, 국어, 한문, 외국어, 역사는 물론 자연계 및 예·체능계 과목에서도 金日成·金正日 우상화를 비롯한 정치사상 교육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념교육의 비중은 막대하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고등중학교 1~3학년 국어교과서를 분석해 보면 총75개 단원 중 정치사상성을 주제로 한 단원이 54개로 72%를 차지하며 그 중 金日成과 그의 가계 우상화를 주제로 한 단원은 42개 단원으로 78%를 차지한다.⁴⁹⁾ 고등중학교 고등반부터는 사로청 조직에 가입하여 黨의 사상체계와 공산주의 도덕교양을 학습한다. 고등학교 졸업단계에서는 主體思想과 김일성부자의 黨정책 관련 논문을 기본적으로 파악하는 기초적 상식을 완전히 갖추도록 하고 있다.

대학생들의 경우는 대부분 기숙사 생활을 하고 사로청에

49) 남북문제연구소, 「교과서를 통해서 본 북한」, pp. 65~66.

소속되어 있으며 金日成·金正日의 革命歷史 이외에 조선로동당투쟁사, 정치경제학, 철학, 「김일성주의의 기본」, 김일성·김정일문헌 등 보다 전문적이고 이론적인 사상학습을 실시한다. 특히 대학 졸업시험에서 전공과 외국어 이외에 金日成·金正日 로작 460여 개 중 1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대학 생활 중에 이 문헌들을 가능하면 암송하고 아니면 내용은 파악해야 하는 정도로 金日成·金正日文獻을 학습한다. 심지어 대학 운동선수의 경우도 실제로 매일 저녁 9시반부터 10시반까지 하루 한 시간씩 金日成著作을 학습하는 등 학습에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다. 대학졸업단계에서는 주체사상의 이론적 근거와 金父子의 勞動黨史를 구체화하도록하여 김부자의 사상이론으로 완전히 무장하도록 하고 있다.

나. 生活週期에 따른 成人期의 學習活動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역사적, 사회적 사건에 의한 政治社會化의 세대적 단절과 변형을 우려하여 성인의 사회화를 상대적으로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⁵⁰⁾ 북한에서 성인들의 주체사상학습은 ‘김일성교시’ 및 ‘김정일말씀’학습을 주내용으로 한다. 金日成·金正日의 교시 및 말씀은 직장인들이 각기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업무과 관련하여 실천해야 할 首領의 요

50) Richard E. Dawson and Kenneth Prewitt, *Political Sociolization* (Boston: Little & Co., 1969), p. 95.

구와 수행방도를 지시하는 것으로 성인기의 학습에서 매우 중요시 하고 있다.

김부자의 교시와 말씀에 대한 학습은 ‘유일사상 10대원칙’에도 가장 중요한 지침으로 반영되어 있는 바, 교시와 말씀을 모르는 지도일군은 지도자로서 행세를 할 수 없고, 노동자·농민도 교시와 말씀을 모르면 자기 일을 할 수 없도록 교시·말씀학습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교시·말씀학습은 강의, 토론, 반복학습의 방식으로 진행하며, 학습과정에서는 주로 교시와 어긋나는 사업활동과 생활을 지적하고 이를 사상투쟁을 통해 해결하도록 가르친다.

金日成·金正日 교시 및 말씀에 대한 학습은 직급, 직위, 분야에 따라 대상을 세분하여 실시하며, 크게 등급별(수준별), 조직별(직능별)로 2분하여 학습하고 있다.

(1) 等級別 學習

등급별·직급별 학습은 각자 자기가 맡은 일을 혁명과업에 이론적으로 결부시켜 이해함으로써 이론적 정당성을 심어주고 실천적 의지를 키워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等級別 學習은 사회전체를 간부와 일반주민(노동자·농민)의 두 계층으로 구분하여 학습을 실시하는 것으로서 이는 학습수준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간부학습은 토요일 오전부터 하루종일 하며, 노동자·농민들은 월요일 일과시간이 끝난 후

저녁에 2시간 이상씩 ‘월요학습침투’라는 이름으로 학습을 하고 있다. 그러나 학습요일과 날짜는 대개 학습반별로 ‘실정에 맞게’ 정해진다.

학습반·등급반별 학습은 강사(혹은 부강사)가 2시간의 강의를 한 후에 대개 4시간에 걸친 토론시간을 갖는다. 강의 및 토론 내용은 주로 主體思想과 맑스주의의 차이, 주체사상으로 무장해야 하는 이유, 주체사상의 요구, 창조적 입장과 자주적 입장에 대한 중요성 등이다. 일반주민들의 학습활동은 대개 1년 단위로 진행하되 1년 내내 계속해서 학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2~3개월 등 일정한 학습기간을 정해 놓고 학습을 한다. 한번의 학습기간에 3~4개의 분야로 구분한 主體思想의 각론을 학습하며 학습기간의 중간에는 휴식기간을 두고 다시 진행하기도 한다. 피학습자는 개별적으로 학습장에 요점을 정리하여 간직하며, 토론은 문답식이나 상호비판의 방법을 사용한다.⁵¹⁾

학습한 후에는 학습총화 또는 학습검열을 실시하는데 학습총화·검열은 매주마다 하지는 않으며 월별, 분기별, 반기별, 연간으로 진행한다. 월학습총화는 자체 학습반에서 하고,

51) 문답식은 학습자들을 두 조로 나누어 한쪽 조가 질문하면 다른조가 답변을 하는 식으로 토론하는 방식을 말하며, 상호비판적 방법은 두 조가 각각 이해한 내용을 발표하고 다른 조가 잘못 이해한 부분을 서로 고쳐주는 방식을 말한다.

분기에는 地域黨, 반기에는 道黨, 연간은 中央黨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지역당 이상급의 학습시험은 사회적 출세와 직위승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에 스트레스를 받아 신체적·정신적 질병을 일으키거나 각종 사회적 부작용을 낳는 경우도 있다.⁵²⁾

직장에 나가지 않는 주부들이나 은퇴한 노인들은 인민반에서 학습을 한다. 인민반학습은 직장이나 조직별 학습 보다는 강도가 약하지만 인민반에도 여맹과 黨세포가 연결되어 있어서 이들을 중심으로 학습을 한다. 특히 인민반은 主體思想이 강조하는 집단주의 생활관을 유지하는 기능을 갖는다. 노동자들은 1주일 단위로, 농민들은 10일 단위로 휴일을 갖기 때문에 인민반 모임도 여기에 맞게 실시하는데, 노동자의 경우 토요일 저녁이나 일요일 저녁, 농민은 장마당이 서는 바로 전날에 모임을 갖는다.

52) 1970년대 초에 학습시험이 매우 강화되어 인테리 층에서는 스트레스성 고혈압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시험장에서 졸도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것이 문제가 되어 1973~1974년에는 당차원에서 고혈압환자는 학습은 하되 시험에서는 제외한다는 정령을 발표하기도 했다고 한다. 다른 사람들의 경우에는 시험기간에 동원(축사나 농장 또는 건설현장)을 자청하는 경우도 있다. 귀순자 김영성 씨와의 면담.

(2) 組織別 學習

조직별 학습은 黨 조직생활을 근간으로 실시된다. 黨 조직생활은 첫째, 교시·말씀, 주체사상, 당정책 학습, 둘째, 혁명과업 수행, 셋째, 강연, 실무학습, 영화학습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조직별 학습이란 원만한 혁명과업 수행을 위해 강연, 영화, 문답식 학습방법 등을 통하여 교시·말씀과 主體思想 및 당정책을 학습하는 것을 일컫는다. 또한 조직별 학습에서 는 黨과 혁명, 首領에 충직하기 위해서는 조직생활을 잘해야 한다는 조직생활 우선시 의식을 주입시키는 것도 학습의 중요한 목표로 되어 있다.

조직별 학습반은 각 직장별로 사로청(14~30세), 직맹(31~65세), 농근맹(31~65세, 여자 60세), 여맹(31~60세)을 중심으로 학습을 실시하는 경우를 가리키며, 組織別 學習은 등급반학습보다 좀더 엄격하고 철저하다. 학습시간은 1일 2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1시간은 주체사상을, 나머지 한시간은 金日成·金正日교양학습을 한다. 주체사상학습은 黨정책학습 또는 특정 내용을 중심으로 각 조직의 특성에 맞는 내용을 선정한다. 예를 들어, 사로청의 경우 청년들의 실정에 맞게 1920년대 항일운동가 김혁, 차광수 등의 청년전사에 대한 학습을 실시한다. 학습시간과 요일은 직장단위로 黨세포와 부문黨을 중심으로 정하되 학습내용과 전체적인 계획은 중앙조직이 하달한다.

직장별·조직별 학습의 중요한 행사 중의 하나는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수요강연회이다. 주로 수요일에 실시하기 때문에 수요강연회로 불리지만 수요일이 아닌 화요일이나 목요일, 금요일에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 수요강연회는 토요일 학습총화와 마찬가지로 직맹, 농근맹 등 모든 조직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수요강연회에서는 국가적으로 토론되는 정책에 대한 학습, 세계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國際問題, 자유주의적 행위에 대한 대응책,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관련된 정책방향 등을 설명한다. 또한 각 직장의 작업반별로 오전 7시 30분에 출근하여 30분 동안 아침독보회를 갖는다. 독보회에는 1명의 선동원이 배치되어 독보회를 주관한다. 직맹의 경우 직총산하에 9개의 산업별 직업동맹이 조직되어 있고 각 직업동맹은 세분화된 조직원리에 따라 소집단활동을 하고 있다.⁵³⁾

조직별 학습은 월별로 총화를 하고 분기별로 학습결과를 점검하는 시험을 치른다. 대학에서 총화는 학부별로, 주민들은 자기조직별로 실시한다. 생활총화는 일정하게 지정된 시간은 없으며 토의문제에 따라 연장 및 단축이 가능하다. 대개 한 사람이 약 5~7분씩 하기 때문에 15명으로 구성된 黨세포의 경우 약 2시간 정도로 진행한다. 주생활총화는 원칙적으로 黨세포비서 혹은 부비서가 진행해야 하지만 주총화의 경우

53) 북한문제연구소, 「북한용어 300선집」(서울: 내외통신사, 1993), p. 65.

는 가볍게 지나가는 예가 많다. 월·분기총화는 몇 사람에게 대해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 총화날짜는 대개 토요일이지만 지역 및 부문에 따라 다른 요일에 하는 경우도 있다.

학습생활총화에서는 누구나 자신의 결함에 대한 사상적 비판을 내릴 뿐만 아니라 주변 동료에 대해서도 비판을 해야 한다. 비판은 구두보다는 주로 필기로 하며 사건을 일으킨 사람이 특별히 있을 경우에는 총화시간에 앞에 세워놓고 심하게 비판한다. 특히 黨세포비서가 참관하는 때는 비판은 심각하게 이루어진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부터 이 비판은 상투적인 행사로 전락한 측면도 없지 않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지각을 했고, 어떤 사람은 학습시간에 졸았다는 등 전형적인 문구를 만들어 놓고(5가지 정도의 형태로) 필요한 것을 대충 하나씩 복사해서 제출하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학습교재는 수준별, 직능별로 다르게 편집되어 있다. 즉 黨員과 간부, 일반인들의 학습수준을 고려해서 만들며, 직명, 여명, 사로청 등 직종에 따라 다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래 주체사상학습이란 계급교양, 黨정책 교양, 혁명전통교양,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교양 등을 포괄한다.⁵⁴⁾ 실제로 主體思想을 학습하는데 있어서 「주체사상」이라는 과목으로 학습

54) 김정일,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1986.7.15),”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헌집」, pp. 154~55.

하는 것이 아니라 金日成主義의 일부분으로 학습한다. 공식적으로는 「김일성동지 혁명사상 학습」이라고 부르며 대상과 수준에 맞게 「덕성실기」 학습, 「항일빨치산희상기」 학습,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등의 구체적인 학습교재를 선택한다.⁵⁵⁾

현재 사상학습의 주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책은 「김일성동지 혁명역사」, 「김정일동지 혁명역사」, 「김일성로작」, 「김정일로작」 등이다. 그리고 모든 중앙급 기관의 직장 및 공장에는 「김일성학습사상 연구실」, 「김정일학습사상 연구실」이 자체적으로 갖추어져 있고 고등중학교에서는 학교마다 「김일성따라배우기」 등의 연구실이 따로 마련되어 있다. 이러한 시설이 없는 직장이나 공장에서는 각 구역단위에 건립되어 있는 「김일성 혁명사상 연구실」을 찾아가 학습한다. 「김일성 혁명사상 연구실」에는 김일성혁명역사 도록(그림책)이 비치되어 있으며 1일 1시간 정도씩 할당하여 혁명역사도록을 1판씩 학습한다.⁵⁶⁾

55) 10권으로 된 「주체사상 총서」가 있지만 북한에서는 주체사상 자체를 놓고 학습하는 경우는 드물다.

56) 도록은 1미터의 넓이로 되어 있고 1판에 약 30개의 그림이 수록되어 있으며, 판수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정확치는 않으나 김일성도록은 72판, 김정일도록은 36판 혹은 43판까지로 되어 있다고 한다.

3. 內面化의 政治社會學的 過程

사회체제는 모든 개인의 생애를 초월하는 역사적 실체로서 사람들을 그 속에 감금하는 벽이다.⁵⁷⁾ 정치사회학적 측면에서 볼 때 主體思想은 통제된 북한의 사회체제 속에서 생애주기에 따른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사상교육을 통해 사회화된다. 취학전 가치판단이 서지 않은 시기부터 자극-반응이라는 조건반사적 학습을 실시하고, 인민학교에서는 덕성교양을, 고등중학교에서는 역사교양을, 그리고 성인기에는 수준별, 직능별로 구분하여 대상과 수준에 맞는 사회화 교육⁵⁸⁾을 실시함으로써 主體思想은 內面化된다.

主體思想의 內面化 과정에서 유아·아동시절의 교육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유아·아동시절에 습득된 가치는 청년시절 이후까지 지속된다는 社會心理學 理論에 근거해 볼 때 외부와의 정보가 차단된 북한사회에서는 더욱 어

57) Berger, *Invitation to Sociology*, 한완상 역, 「社會學에의 招待」, pp. 92~129.

58) 김정일은 학습을 학습대상의 특성과 준비정도에 따라 알맞는 방법을 사용하며, 특히 실천적 차원에서 자기 업무와 관계되는 저작학습을 통하여 이론·실천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주민들을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해서는 학습활동과 조직생활, 실천투쟁의 강화라는 3가지 방향으로 사상무장화를 추진하고 있다.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 앞의 책, pp. 61~66.

런시절에 받은 교육의 영향이 크다. 또한 태어나면서부터 조직에 소속되어 일생 동안 중첩적인 학습망으로 이어지는 조직화된 강제의 상황에서 사람들은 일종의 규범적 압력을 받게 된다. 이러한 규범적 압력 속에서 같은 내용을 가지고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주제로 반복적인 학습을 실시함으로써 사람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자발적인 동의에 의해 內面化된 것으로 여긴다.

생활과 학습을 밀접하게 연결시키고 있는 북한은 사회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학습장이라고 할 수 있다. 農村에서는 협동농장을 전통적 리단위의 생활권을 유지하여 작업반 및 분조를 학습활동에 긴밀히 연결시킴으로써 생활 속에서 主體思想을 內面化할 수 있도록 하였다. 都市에서는 인민반제도를 생활의 기본조직으로 움직이며, 직장별로 월요학습침투, 수요강연회, 토요일총화학습 등의 조직활동을 통하여 사회전체를 거대한 학습장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소년단, 사로청, 직맹, 농근맹, 여맹 등 각종 대중단체는 학습활동의 핵심적인 매개체이다. 이 조직들이야말로 북한주민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여 黨에 묶어두고 정치경제적 과업수행을 위해 동원하고 사상교양을 시키는 중요한 기구이다.

主體思想의 내용 중에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은 유기체론적 생명론을 제시함으로써 맑스-레닌주의 이론이 제시하지

못하는 개인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일종의 신앙 또는 인생관으로 內面化되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⁵⁹⁾ 개개인은 죽음으로 사라져 버리는 유한한 존재이지만 사회는 개인을 초월해서 영원히 존재한다는 사회의 영원불멸설까지 주장함으로써 집단주의 속에서 개인의 의미를 찾으려 한다. 黨과 首領의 지도하에 조직사상적으로 통일단결된 인민대중만이 자기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 나갈 수 있으며, 인민대중은 집단주의적 생명관에 기초하여 이 집단의 최고 뇌수인 首領의 지시를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으로 따를 때만 社會政治的 生命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⁶⁰⁾ 이 ‘영생불멸’의 사회정치적 생명은 곧 首領論으로 이어져 정권유지의 근간이 되는 한편, 각 개체에 존재의미를 부여한다. 여기에 집단주의적이고 혈연중심의 전통적 가치를 흡수하여 지도자와 인민과의 관계에서도 首領을 ‘아버지’로, 黨을 ‘어머니’로 의인화하고 충성과 효도라는 인정에 기초한 전통적 인간관계를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개개인의 內面化를 촉진하고 있다. 따라서 主體思想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59) 박용곤·김화효, 「주체사상입문」 (동경: 구월서방, 1989), p. 257.

60) 김정일,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1986.7.15),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헌집」, pp. 159~65.

“혁명적 수령관을 튼튼히 세우는 것”이며, 金日成·金正日에 대한 충실성교양과 불가분의 관계 속에 정권유지의 기반이 되고 있다.

북한주민들의 사상학습과 조직별총화로 이어지는 이러한 학습체계는 宗教集團의 생활패턴과 매우 유사하다. 학습활동을 중심으로 한 북한주민들의 조직생활은 일요일민반회의와 수요강연회, 토요일총화학습 등으로 엄격히 짜여져 있을 뿐 아니라 金日成·金正일에 대한 찬양가나 칭송가 부르기, 충정심의 표현으로 철야작업을 하며, 행사 때마다 관행처럼 되어 있는 흥분상태 만들기 등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본다면 主體思想은 북한사회에서 단지 지배자들의 통치 이데올로기임을 떠나서 그것은 이미 북한주민의 개개인의 의식 속에 깊이 스며들어와 있는 초월적 사회규범으로 형상화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북한주민들은 정부와 국가가 만들어 놓은 主體思想이라는 규율을 주어진 조건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될 뿐 아니라 그 규칙에 스스로 복종하기를 ‘원하게’되는 것이다.⁶¹⁾ 뒤르켐(E. Durkheim)의 말을 빌리자면, 主體思想은 “저밖에(out there)” 존재하는 어떤 것일 뿐만 아니라 이미 “이안에(in here)” 들어와 있는, 그래서 북한주민의 내면에 가장 깊숙히 파고들어가 있는 삶의 일부이

61) Berger, *Invitation to Sociology*, 한완상 역, 「社會學에의招待」, p. 166.

자 전부일지도 모른다. 主體思想은 북한주민들의 행동을 외부에서 통제하는 기제일 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자아정체감과 정서에 형상을 부여하면서 개인의 의식구조가 되어버린 것이다.

第Ⅳ章 社會·經濟的 條件의 變化와 內面化의 變化

1. 經濟發展과 內面化의 時期別 推移

북한은 사상학습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했음에도 불구하고 主體思想에 대한 內面化가 항상 성공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제Ⅱ장에서 이미 서술하였듯이 정치사회화가 학교 교육과 성인교육을 통해 아무리 체계적으로 실시된다 하더라도 사회적, 경제적 제반 여건이 그 내용과 일관된 체계를 이루지 않으면 사회성원의 가치체계는 혼란을 가져오고 內面化는 각 개인에 의해 선택적으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 특히 역사적 상황이나 사회환경이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社會經濟的 條件과 유리되어 전개되는 사상교육과 학습활동은 성공적인 내면화를 가져오지 못한다. 따라서 북한주민들의 主體思想에 대한 內面化 정도도 경제발전의 급격한 성취 혹은 장기적 경제침체 등 경제구조에 좌우되며, 동시에 식민통치와 韓國戰爭 및 사회주의권 붕괴 등의 사회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이론적 정당화 작업과 상호작용을 통하여 內面化가 유지된다고 볼 수 있다.

韓國戰爭으로 북한경제의 물적 토대는 완전히 파괴⁶²⁾되었으며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물적 기반의 완비보다

는 사회적 관계의 개조를 통해서 경제건설을 추진하였다. 북한은 부족한 노동력을 효율적으로 동원하기 위해서 인민들의 교양개조를 시작하였으며, 자력갱생적 主體思想은 사상자극적인 방법에 의한 노력동원과 생산성 제고에로의 구심점을 찾게 해주는 기능을 발휘하였다. 主體思想은 대중동원을 위한 이념적 토대가 되었고 천리마운동, 청산리방법, 대안의 사업체계 등의 구체적 정책으로 이어지면서 1960년대 중반까지 북한사회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었다.

韓國戰爭 이후 급속한 경제복구 사업의 성과와 농업협동화의 완수 등 사회주의 체제의 전반적인 제도적 완비로 인해 1960년대 중반까지는 주민들의 자발적 동의에 의한 內面化를 유도해 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北韓은 1958년에 사회주의의 제도적 완성을 끝냈고 1957~1961년으로 계획되었던 5개년계획을 1년 앞당겨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자 자신감을 갖고 사회주의 건설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1961년 9월에 개최된 제4차 黨대회 보고에 의하면 1957~1960년 사이 4년 동안 공업총생산액은 3.5배로 늘어났으며 연평균 성장속도는 36.6%에 이른 것으로 발표하였다.⁶²⁾ 특히 공업화의 비

62)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편, 「조선전사 28」 (평양: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1981), p. 15, 17.

63) 김일성, “조선로동당 제4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김일성저작집 1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pp.

율은 1956년의 17.3%에서 1960년에는 21.3%로 높아졌으며 기계설비의 국내자급율은 46.5%에서 90.6%로 상승했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성공적인 戰後 복구사업은 韓國戰爭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고려할 때 괄목할 만한 업적으로 여겨졌다. 主體思想이라는 공식이데올로기에 대한 사상교양은 경제성장과 더불어 북한주민들에게 심리적, 규범적 호소력을 가질 수 있었으며 개개인의 의식생활을 지배하는 자아의 일부로 內面化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1960년대 중반까지 자력갱생과 主體思想의 노선에 입각한 사회주의 경제건설이 고조기에 이르는 동안 主體思想에 대한 '신심도'가 매우 높았다고 평가된다. 제1차 5개년계획이 4년 만에 초과달성하였던 이 시기는 <그림 4-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內面化의 고조기로서 金日成이 얘기하는 모든 것(주체사상은 물론)은 당연시되었으며, 대부분의 북한주민이 主體思想에 대한 강한

〈그림 4-1〉 주체사상 내면화의 시기별 추이

60년대 중반	70년대 중반	80년대 초반	80년대 후반	
(I)고조기	(II)완만기	(III)급하강기	(IV)정체기	(V)하강기

신뢰를 표시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960년대 중반 이후 北韓의 經濟가 하강기에 접어들자 그 이후 1970년대 중반까지 主體思想에 대한 內面化 정도는 전반적으로 떨어졌다. 1950년대의 경제적 성과를 바탕으로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제1차 7개년계획(1961~1967)이 3년간 연장되면서 사실상 10개년계획이 되고 말았다. 이 시기 북한 내에는 빨치산 세력이 권력의 전면에 등장하였고 경제발전과 군사력 강화를 병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목표하에 군수산업과 군비증강에 역점을 둠으로써 전반적인 경제침체를 초래하였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1965~1966년경에 主體思想에 대한 “인민들의 열의가 식어간다”는 金日成의 통탄의 소리가 있었으며, 金正日是 1967년부터 ‘김일성유일체제’의 확립작업을 시작하였다. 이러한 사상교육의 체계화는 나름대로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되지만 만성적인 경제침체로 인해 主體思想에 대한 신뢰도는 약간 낮아졌다.

그 후 北韓은 중공업과 기계제작산업을 집중적으로 발전시킬 계획을 수립하고 서유럽 국가들로부터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여 제1차 6개년계획(1971~1976)은 높은 성장율을 보였다. 그러나 중동오일쇼크와 국내가뭄이 악재로 작용한데다 6개년계획의 중점목표였던 전력공업과 채취공업의 부진으로 인해 중공업 부문의 발전은 뒤따르지 못한 채 1년 간의 조정기간을 두어야만 했다. 대외적으로도 1976년부터 지불정지

선고를 받음으로써 제2차 7개년계획(1978~1984) 기간 동안의 해외자본 유치에 난관에 부딪히게 되었다. 따라서 제2차 7개년계획에서는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기치로 내걸고 自立經濟를 추구하였으나 산업구조의 불균형 심화와 사회간접자본의 열악성으로 인해 생산량은 격감하였다. 이로서 북한 경제는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도 원만히 해결하지 못하는 최악의 상태로 전락하게 되었고, ‘숨은 영웅 따라배우기 운동’ 등 인간개조운동으로 主體思想을 유지해 보려하였으나 197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 초반에 主體思想에 대한 ‘신심’은 급격히 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⁶⁴⁾

1983년 6월 中國經濟特區를 시찰하고 돌아온 金正日은 1984년 2월, 의식주 문제의 해결 및 유통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주민생활향상 정책을 발표하였다.⁶⁵⁾ 대내적으로는 ‘8월 3일 인민소비품증산운동’을 전개하여 생필품 공급을 확대하고 주민 개인에게 물질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정책을 취하였으며, 광복거리(1985년), 통일거리(1988년) 건설을 추진함으로써 주민들의 생활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한편, 대외적으로는 합영법을 채택·시행함으로써 경공업 제품

64) 귀순자 김정민 씨와의 면담.

65) 김정일, 「인민생활을 더욱 높일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협의회에서 한 연설, 1984.2.16)」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4).

의 원활한 공급을 꾀하였다. 경제침체에 대한 이론적 정당화 작업과 함께 1980년대 초반 이후 취해진 대주민 정책에 힘입어 주민들의 主體思想에 대한 內面化 정도는 정체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89년 사회주의권의 붕괴를 계기로 主體思想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신뢰도는 다시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소연방 해체로 인해 북한의 제3차 7개년계획(1987~1993)이 실패하였고, 그만큼 생활수준향상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가 사라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金正日은 1989년 사회주의권 붕괴와 소연방의 해체를 목격한 젊은 세대들의 동요를 견제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⁶⁶⁾하였으며, 동시에 경제침체에 대한 이론적 합리화 작업을 추진하여 민족제일주의와 우리식 사회주의 등으로 主體思想을 지탱해가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회경제적 환경변화로 인해 主體思想에 대한 믿음은 약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66) 김정일, “혁명적 당건설의 근본문제에 대하여(92.10.10),” 「로동신문」, 1992.11.2.

2. 世代別 內面化의 力動性⁶⁷⁾

사회구조의 변화와 함께 世代間 내면화의 차이를 검토하는 것은 중요하다. 제Ⅱ장에서 언급한대로 세대 간의 단절은 급격한 산업화와 함께 도시와 농촌의 유동성이 커짐에 따라 뚜렷해지는 현상⁶⁸⁾이지만 북한에서는 지역간의 이동, 특히 도시·농촌 간의 이동이 제한되어 있어서 主體思想 內面化 정도에 있어서 ‘세대차이’는 적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세대가 처한 사회경제적 환경과 특정교육의 집중성으로 인해 세대 간에 主體思想에 대한 인식의 정도에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50, 60대의 長年層은 주체사상의 등장배경과 역사적 발전 과정을 경험적으로 체험하였기 때문에 자주성과 수령관 및 집단주의에 대해서 비교적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며 이해하고 있으나 철학적 측면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이다. 장년층에게 주체사상은 1960년대 말 처음 교육받을 때는 “우리 힘을 믿고 우리 힘으로 해보자”는 다분히 자주성에 관한 것

67) 주체사상에 대한 세대간 차이는 제V장에 기술되어 있는 면접 대상 귀순자 8명 중 장년층 2명과 젊은층 6명의 진술을 근거로 분석한 것이다.

68) D. Jaros, *Socialization to Politics*, 林永喆·金恒元 공역, 「政治社會化」, pp. 94~101.

이었으나 이것이 1970년대에 들어서 점차 김일성주의로 등식화하면서 수령론과 동일시되었다. 따라서 長年層은 주체사상의 핵심에 대해서 다분히 수령론과 집단주의 등으로 이해하는 경향을 보인다. 조직체는 사회조직의 요구를 실현해야 하며, 조직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육체에 뇌수가 있어서 사고작용을 하는 것처럼 조직의 수령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主體思想이 하나의 거대한 가치관이라고 하면 수령관은 개인이 수령을 보는 관점으로 조직생활, 집단주의 원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집단주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무조건적인 복종이 있어야 하며, 이것은 主體思想으로 이어지는 핵심적 연결고리가 된다.

長年世代는 주체사상의 실천과제로서 ‘주체사상의 요구,’ ‘창조적 입장’과 ‘자주적 입장’을 중요하게 간주한다. 이는 主體思想을 자주성·창조성·의식성에 기초한 철학적 개념으로 이해하기 보다는 사물을 대하는 하나의 입장과 방법으로 인식하고 철학적 개념화에 대해서 다소 부정적인 태도를 취한다. 뿐만 아니라 장년 세대는 성분과 계층의 세대적 변화를 목격하면서 과거의 불순한 계층과 성분을 지닌 젊은이들이 신분·성분 상승으로 북한사회의 핵심분자가 되어가는 현상에 대해서는 비판적이다. 이들은 젊은층들이 지난 50년 동안 행해져 왔던 정치적 숙청과 유일체계 건설에 얽힌 ‘역사적’ 변천사를 모르기 때문에 수령론과 집단주의에 맹목적으로 열

광하고 있다며 달갑지 않은 시선을 보낸다. 젊은 세대들이 金日成·金正日에 대한 무조건적이고 맹목적인 충성과 같은 사회현상을 체념적인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듯 하다.

반면, 20, 30대의 젊은 세대는 인간중심의 철학과 민족제일주의 문제를 주체사상과 관련된 핵심적 내용으로 인식하고 이 점에 대해 장년층보다는 긍정적이다. 젊은층에서는 대개 主體思想의 핵심을 “자기운명은 자기자신에게 있으며 혁명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 등 철학적 원리를 열거하였다. 반면, 首領論에 대해서는 수령의 뜻을 받들어 수령을 자신의 뼈와 살로 받아들인다는 의미로 설명하며 학습시험을 위해 암기해온 수령관과 다른 역사적 사실들은 논리적이지 못하다. 그러나 생활방식에 있어서는 金正日의 敎示와 黨의 지침인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원칙」이 생활 속에 배여 있어 행위규범의 준거로 삼고 있다. 「10대원칙」에는 어떤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이들의 태도로 미루어 볼 때 젊은층은 소위 ‘무조건적인 충성’이 內面化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젊은 세대는 우리식 사회주의와 민족제일주의 등 최근 北韓이 이론적으로 발전시킨 주체사상이론에 심취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통일문제와 관련하여 “통일은 우리 힘으로 우리손으로 해야 한다,” “외세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나라 독자적으로 하자”라는 외세배제적 민족주의를 지지하

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⁶⁹⁾ 특히 1990년대 들어 강조되고 있는 민족제일주의에 대해 북한주민의 100%가 믿고 있다고 평가하는 젊은이가 있는 것으로 보아 민족제일주의에 대한 열광은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최근 北韓이 민족제일주의를 부쩍 강조하고 민족문화 발굴사업을 추진하는 일련의 작업들이 젊은층에게 主體思想의 內面化를 달성하는데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⁷⁰⁾

따라서 북한에서는 사회경제구조에 따른 세대 간의 가치격차가 발생한다는 보편적 이론보다는 政治社會化의 내용과 방법의 차이로 인해 세대 간의 간극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세대간 主體思想의 內面化에 대한 차이는 급격한 산업화와 함께 도시/농촌의 이동이 비교적 자유로운 사회에서

69) 이들은 남한이 외국에 의존하고 있으며 자립적으로 살아가지 않는데 대한 의구심이 많으며 구체적인 예로 “미군부대가 서울 한복판에 자리잡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통일은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해야 한다,” “미국은 남한의 방위를 해준다고 하면서 남한을 지배하는 지배주의자다,” “우리는 우리식대로 살아나가자”는 등 민족제일주의 노선이 담긴 발언을 하였다.

70) 민족제일주의의 기저에는 자위국방에 대한 자부심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젊은이들은 북한이 산이 많은 우리지형의 특성에 맞게 군사시설과 장비를 개량하고 군사시설을 대부분 산속터널로 만들어져 있어 웬만한 폭격에도 견딜 수 있으며 패이트리어트미사일이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가 젊은이들에게 ‘신화’로 되어 있는 듯하다.

발생하는 세대 간의 단절현상과는 달리, 主體思想에 대한 내용이 세대 간에 다르게 인식되고 있을 뿐이다. 각 세대는 생애주기 중 감수성이 예민한 아동·청소년 시기에 받은 집중적인 사상교육과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主體思想이 강조하는 특정 부분⁷¹⁾이 강하게 內面化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1967~1974년 「유일체제」 확립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은 그 이전 세대들과는 달리 유일체제의 성립과정을 역사적 맥락에서 보지 못하고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맹종적 태도를 보이는 경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3. 社會·經濟的 變化와 內面化의 危機管理

가. 經濟沈滯에 따른 合理性의 危機와 正當化

主體思想이 초기에 內面化될 수 있었던 근본적인 배경은 해방 이후 북한이 추진한 토지개혁과 중요산업 국유화조치, 그리고 전후의 급속한 경제성장 등이었다. 토지개혁이 철저히 이루어져 이로 인한 분배의 몫이 골고루 돌아갔기 때문

71) 예를 들어 1960년대에는 대외자주성, 1970년대에는 수령관 및 집단주의 생활관, 1980년대에는 인간중심의 철학과 사회정치적 생명체론, 1990년대에는 민족제일주의와 우리식 사회주의 등이 집중적으로 내면화될 수 있다.

에 다수의 지지를 받을 수 있었고, 이로써 사상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경제적 토대가 마련되었기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다. 대다수의 국민이 소작농이었던 당시의 사정을 감안하면 社會主義 제도적 개혁을 통해 계급의식이 자연스럽게 고취되었을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정부가 산업을 독점적으로 통제하면서 인민들의 생활을 규제할 수 있었으며, 주택배정 등 의식주생활 전반을 국가가 관리하면서 복지제도의 힘을 국민들을 통제하는데 최대한 이용할 수 있었다. 이들은 자기들의 생활보장이 모두 社會主義의 덕, 金日成의 덕이라고 느끼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정당화는 일제시대의 식민지, 봉건적 지배의 폭압을 통해서 얻어진 경험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북한 주민의 뇌리에서 떠날 수 없는 사실로 굳어져 갔을 것이라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더욱이 北韓은 폐허가 된 전쟁터에서 南韓에 비해 전후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한 경험적 사실에 바탕을 두고 주민들을 社會主義와 主體思想의 이념으로 단결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1960년대 중반 이후 社會主義 계획경제의 효율성이 떨어지면서 사회주의 체제의 (경제)합리성이 문제시 되었다. 사회주의 계획경제, 통제경제의 비효율성이 지적되었고 北韓도 다른 사회주의 국가처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70년대 초에 서구의 자

본과 기술을 도입하는 외자도입 정책을 시도했으며, 1984년에는 대내적으로 사적 부문을 제도적으로 허용하고 대외적으로 합영법을 채택·시행하는 정책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北韓은 1993년 12월 黨 제6기 21차 전원회의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제3차 7개년계획도 실패하였다. 北韓은 경제침체의 원인을 사회주의권 시장 붕괴와 '통일자본'의 소모, 즉 국방력 강화 등을 열거하면서 합리화하였다. 실제로 경제침체의 상당부분이 국방비 과다투자에 기인하고 있다. 전쟁유사시 보급로가 차단되지 않기 위해서 각 지방별, 특히 군단위로 자급체제를 유지하도록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각 공장마다 반드시 군수품 생산라인을 별도로 설치·운영하여 지역별 자위국방체제를 갖추었고, 미군의 공군폭격에 저항할 수 있도록 대부분의 군사시설을 지하에 건설하였다. 이처럼 전쟁으로 인한 피해망상적인 전시경제체제의 구축은 北韓經濟의 침체를 가져오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수 밖에 없었다.

북한경제가 침체를 거듭하는 것은 중공업 우선정책으로 야기된 산업간 불균형이라는 社會主義 體制의 보다 근본적인 구조적 병폐에 기인하는 것이다. 북한은 경제침체의 원인이 구조적이라는 점에서 체제의 합리성이 심대한 도전을 받게 되자 1980년대 들어서는 체제를 정당화하기 위한 이론적 수정작업을 시도하였다. 즉 社會主義 體制의 우월성을 경제적

효율성 내지 합리성에 대한 주장에서 일보 후퇴하여 사회적 합리성 내지 도덕성으로 연결시키면서 정당화를 시도한 것이다.

北韓은 초기 발전과정에서 蘇聯의 경험을 절대적으로 모방하여 계획·통제경제를 통하여 선진국을 따라잡고 조국을 발전시키겠다는 ‘추격발전’의 한결같은 열망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1960년대 중반 이후 성장속도가 둔화된 데다가 1970년대 중반부터 남한경제가 급성장함에 따라 남북간 경제균형마저 깨짐으로써 경제효율성에 대한 주장의 합리성이 사라지자 北韓은 경제우위 대신, 무상교육·무상치료, 무세금 등 사회복지제도를 내세워 체제의 우월성을 정당화하게 되었다. 이는 체제의 우월성에 대한 주장이 객관적·실증적 사실에 있어서 괴리가 발생하자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사회심리적 차원으로 돌린 것이다. 北韓은 이제 직업보장, 의식주와 생필품보장, 무상치료제, 무료교육 등 소위 ‘사회적 혜택’을 北韓의 ‘제3세계 사회혁명’의 가치로 연결시키면서 체제를 정당화하고 있다.

흥미있는 사실은 이러한 정당화의 시도가 北韓의 역사적·사회적 경험 속에서 전혀 무의미한 결과만을 낳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정당화는 帝國主義 식민통치의 억압이라는 제3세계의 보편적 경험에 입각하여 경제성장보다는 사회적 평등의 가치에 호소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용

인되고 있다는 사실이다.⁷²⁾ 식민통치를 경험한 北韓에서 사회주의 체제는 경제적 의미보다는 독립과 자주, 평등이라는 정치적이고 사회심리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졌다고 볼 수 있다. 단시일 내에 공업화를 달성하겠다는 경제적 효율성은 이러한 정치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써 간주되었을 뿐 절대적이고 유일한 이념은 아니었다.

이러한 정당화는 1990년대에 들어 金日成·金正日의 敎示에도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1990년 5월 최고인민회의 9기 시정연설에서 金日成은 북한이 현재 “유족한 생활을 하지는 않지만 기본생활은 보장받고 있다”라며 경제효율성보다는 사회적 우월성을 강조하였다.⁷³⁾ 특히 金正日政權이 들어선 이후 북한사회는 도덕성과 윤리성을 사회혁명의 이념으로 더

72) 사회주의 혁명은 제3세계에서 경제적 낙후성과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이였음과 동시에 국제적 예측과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대항의 도구로 인식되었다. 북한과 같은 제3세계의 사회주의에 있어서 ‘추격발전’의 이념은 단지 ‘하나의’ 가능한 형태에 불과하였으며, 소련과 동유럽 등의 서구 사회주의가 표방했던 경제발전만을 혁명의 ‘유일한’ 이념으로 내세우지는 않았다. 북한의 경우, 경제적 의미에서의 ‘추격발전’ 개념은 초기 발전과정에서 북한이 남한보다 경제적으로 우월한 시기에 주로 강조된 이념이었다. 김병로,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사회통합적 성격에 관한 분석,” 「일죽 김광수교수 회갑기념논문집」 (1993), pp. 601~05.

73) 김일성, “우리나라 사회주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자 (90.5.24)”

욱 강조하고 있다. 金正日은 1992년 1월 “오늘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근로자들이 누구나 능력과 소질에 맞는 일자리를 보장받고 있으며 아직 유족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먹고 입고 쓰고 사는데서 근심걱정을 모르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⁷⁴⁾고 함으로써 1984년 “경제적 면에서 남조선을 압도하고 완전히 눌러 놓아야 한다”⁷⁵⁾는 평가에서 한 차원 내려섰다.

北韓은 경제침체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主體思想의 변용으로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정당화를 시도하고 있고, 그 결과 적지 않은 효과를 보고 있다. 즉 北韓의 사회주의가 南韓의 資本主義 제도보다 효율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30~40%에 불과하지만, 사회주의 제도가 소위 사회적 불평등을 제거하는 보다 나은 제도로 인식하는 사람들은 70%나 되는 효과를 보게 된 것이다.⁷⁶⁾ 이들은 사회주의 경제가 더 효율적일 수 없으나 자본주의는 개인이 경쟁을 해야 하고 그만큼 개인의 부담이 커지며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발생한다는 ‘사회적’ 문제점을 지적함으로써 사회주의를 정당화하는 것이다. 오히려 사회주의에서 실업자를 없애기 위해 ‘완전고용’ 제도를 추구하는 한, 社會主義는 資本主義에 비해 비효

74) 김정일, “사회주의 건설의 력사적 교훈과 우리당의 총로선 (92.1.3)”

75) 김정일, “인민생활을 더욱 높일데 대하여(84.2.16)”

76) 귀순자 고청송, 김정민 씨와의 면담.

을적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北韓의 체제를 「자립적 민족경제 체제」라고 정당화하고 있다.

나. 改革·開放에 따른 社會的 副作用과 統制強化

主體思想의 內面化가 초기에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던 사회적 조건은 韓國戰爭의 결과 때문이었다. 韓國戰爭은 북한에 엄청난 인적 손실을 가져오면서 北韓의 가족구조와 사회구조에 지각변동을 일으켰다. 北韓 공식인구 자료는 1949년과 1953년 사이에 약 113만 가량의 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이것은 1949년 북한인구의 12%에 해당하는 숫자이다.⁷⁷⁾ 그러나 인구증가율을 고려하면 실제 인적 피해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판단된다. 韓國戰爭에 관한 권위있는 학자인 브루스 커밍스와 존 헬러데이는 전쟁으로 북한사람이 최소한 250만이 희생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⁷⁸⁾ 이보다 많은 350만 이상의 희생자를 내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 객관적으로 민간인 200만, 군인 50만의 사망자를 내었다고 평가해 볼 때 이는 당시 북한인구의 25%에 해당하

77) Nicholas Eberstadt and Judith Banister, *North Korea: Population Trends and Prospect* (Washington, D. C.: U. S. Bureau of the Census, 1990), p. 52.

78) Jon Halliday and Bruce Cumings, *Korea: The Unknown War* (New York: Pantheon Books, 1988), p. 202.

는 엄청난 숫자이다. 대량의 인명손실로 인해 결손가족의 수가 크게 늘어나 전후 전쟁미망인의 수가 40만명에 달했다고 밝혀지기도 하였다.⁷⁹⁾ 전쟁사망자 수가 전체인구의 25%였고 거기에 부상자 182만을 포함하면 전쟁의 피해로 북한인구 중 약 50%가 결손가족이 되었다는 설명이 된다.

戰爭의 피해자가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北韓은 전사자·피살자 가족을 사회의 핵심세력으로 등용시키면서 계층구조를 재정비하였다. 또한 이들을 흡수하기 위해 만경대 혁명유자녀학원, 강반석 혁명유자녀학원 등 社會主義라는 제도적 장치를 활용하였고 그 결과 北韓은 인민의 25%가 사회의 핵심세력으로 사회주의 체제를 지탱하고 있다. 전통적 가족관계의 해체와 결손가족의 증가는 국가에 의한 주민 생활보호 책임의 증대라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北韓에서 主體思想을 포함한 사회주의 제도를 받아들이는 사회적 토대를 마련해주었다.

북한사회에서 전쟁의 피해는 곧 帝國主義에게 당한 피해로 인식됨과 동시에 제국주의의 잔인성과 비인도성을 폭로하는 등 사회주의적 가치를 고취시켰다. 資本主義를 ‘악’으로 규정하고 社會主義를 ‘선’으로 인식하는 대결구도를 체험한 것이다. 전쟁의 질적인 피해로 집약되는 상대방의 극단적인

79) Hyo-Jae Lee, "National Division and Family Problems," *Korea Journal*, Vol. 25, No. 8, pp. 4~18.

잔인성은 북한사회에 통합력을 제공하였다. 예를 들면, 전쟁 과정 중에 자기 지역에서 타체제에 동조적이라고 의심되는 반동분자들을 색출·처형하였고, 학살당한 시체를 시범케이스로 전시하는 등 온갖 잔혹한 방법을 동원했다. 이같은 사상전쟁에서 극도의 잔인함을 목격한 북한 사람들에게 타체제에 대한 두려움은 그만큼 커졌으며 자체제에 대한 무조건적 동조만이 살길이며 심리적인 불안감을 덜어주었을 것이다.

韓國戰爭의 경험은 일제식민지의 수탈경험과 함께 사회주의 사상의 학습과정에서 중요한 사회적 배경을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면 북한의 아동 그림책 14책 33편을 무작위로 선정·분석한 결과, 33편 모두가 韓國戰爭과 일제 식민지하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연구는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준다.⁸⁰⁾ 이와 같은 내용은 사상학습의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대부분의 북한영화에서도 자주 등장한다. 북한의 토지개혁과 농업협동화로 北韓 社會主義 體制의 가치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형성되었다면, 내전으로 인한 사회심리

80) 박영옥, “북한의 지배이데올로기와 초기 정치사회화: 사회화매체 분석을 중심으로,” 「1993년도 후기 사회학대회 발표논문 요약집」 (1993.12.10~11), p. 208. 결손가족의 사회적 배경을 바탕으로 체제에 대한 동의를 이끌어 내는 담화 중에는 “... 어려서 부모를 잃고 당의 품속에서 살면서 대학도 마치고 이렇게 성장한 내가 아니요”(「로동신문」, 1993.4.28)라는 문구가 자주 등장한다.

적인 감정은 체제를 수호하는 절대적인 종교로서 북한 인민들의 사고와 삶을 지배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기반은 1984년 金正日이 소폭적인 개혁·개방정책을 취하면서부터 크게 달라지기 시작하였다. 北韓은 1970년대 말에 이르러 산업 간의 구조적 불균형이 심화되어 경공업과 소비제품이 극도로 열악한 상태에 처하자 1984년에 소규모 개혁·개방조치를 취하였다. 金正日은 1983년 6월 中國 특구를 방문하고 돌아온 후, 1984년 2월 자신의 정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新經濟政策을 발표하였다. 즉 중공업 중심의 산업구조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한 만성적인 경공업 제품 및 생필품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의식주 문제해결 및 유통구조 개선 등을 골자로 한 “인민생활을 더욱 높일데 대하여”라는 경제활성화 정책을 발표하고 제도화 작업에 착수한 것이다. ‘8.3인민소비품 증산운동’을 추진하고 「직매점」을 제도화하였으며, 터발활용을 강화하고 「장마당」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등 주민 개개인의 물질적 인센티브를 제공하였다. 대외적으로는 합영법을 제정하여 부족한 생필품을 외부로부터 지원받아 공급함으로써 경제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소규모 改革·開放政策이 추진되자 물질생활 향상과 돈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아졌다. 북한주민들이 인민소비품 생산공장과 가내작업반 등 개인부업을 선호하는 분위기

기가 형성되었고, 이는 관료주의와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는 등 ‘자본주의적 병폐’가 발생하였다. 또한 엄격한 주민통제에도 불구하고 합영법 시행 이후 무역업자와 방북교포의 왕래가 잦아지고 여기에 유학생, 외교관 등을 포함한 외국경험자들로부터 서방문물 및 정보가 유입되고 1988년 서울올림픽을 전후해서 南韓의 발전상에 대한 소식도 간접적으로 접하게 되었다.

金正日의 이러한 개혁·개방정책은 1989년 말부터 시작된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인해 결정적인 타격을 받고 일시 후퇴하는 조짐을 보였다. 金正日은 동독, 루마니아 등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의 원인이 바로 개혁·개방정책에 따른 부작용임을 뚜렷이 인식하였다. 즉 개혁·개방정책의 추진 결과를 관료주의가 팽배하고, 지식인과 청소년들의 사상오염이 심각해지며, 그에 따른 엘리트 간의 분열로 결론짓고 사상통제를 강화하였다.⁸¹⁾ 그래서 1984년 개혁정책과 함께 1달에 한번으로 느슨하게 풀어 놓았던 학습활동과 생활총화를 1991년부터 다시 1주일 단위로 환원하였다. 한편, 개혁·개방정책의 부작용으로 사회문제가 된 암거래, 매춘 등을 제거하기 위한 「반사회주의적 요소 타파를 위한 ‘그루빠’」를 조직하여 1993년 말까지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작업을 강화하는 등 사상

81) 김정일, “혁명적 당건설의 근본문제에 대하여(92.10.10)”

무장의 고삐를 바짝 조였다.

결론적으로, 北韓은 경제침체의 장기화로 인한 사회주의 체제의 경제합리성이 실추된 시점에서 체제의 우월성에 대한 새로운 이론적 정당화를 시도했으며 이는 북한역사적 경험 속에서 상당히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東歐 및 舊蘇聯에서 보여주었듯이 경제침체로 인해 불가피하게 취해진 사적 부문의 확대 정책과 대외개방 정책은 주민들의 물질적 가치추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줌으로써 주민들의 의식변화와 소득구조의 이중성 및 부정부패 등과 같은 여러 사회적 부작용을 초래, 主體思想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왜소화되었다. 더욱이 대외 정보개방의 증대는 內面化된 가치와 객관적 사실 간의 괴리를 발생시킴으로써 內面化의 축진을 심각하게 억제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개혁·개방조치가 초래한 사회적 분화현상은 主體思想이라는 이념으로 통합하기에는 적지 않은 한계를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第 V 章 歸順者를 통해서 본 北韓住民의 主體思想 內面化 實態

1. 資料蒐集 및 資料의 性格

1994년 2월 17일부터 6월 10일까지 북한인 귀순자 8명에 대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대상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표 5-1〉 面接對象者 概要

사 례	연 령	귀순연도	귀 순 전 직 업
C1	49	88.5	무역회사 사장
C2	60	92.6	건축기사
C3	27	92.8	체육교원
C4	30	90.4	유학생
C5	33	89.9	군인
C6	33	93.6	혁명사적지 보존사업 지도원
C7	27	93.9	노동당 대남첩보요원
C8	25	93.10	대학생

內面化는 기본적으로 개인적인 확신과 신념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主體思想의 內面化 상태에 대한 측정은 주체사상의 각 분야에 대해 “과연 삶의 신념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통하여 內面化 유무를 측정하였다. 사회체계의 차원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면화되어 있는가를 파악

하기 위해 전체인구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內面化되어 있는가 하는 비율을 퍼센트(백분율)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응답자들의 애매모호한 답변을 줄이고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응답을 얻어 내고자 하였다.

동시에 內面化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내면화되었다고 평가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에 관계없이 “얼마나 강하게 믿고 있는가,” “얼마나 열렬히 신봉하고 있는가,” 혹은 “얼마나 강하게 거부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 그에 대한 응답을 분석하였다. 나아가 어떤 집단이, 혹은 어떤 계층, 혹은 어느 지역이 더 강하게 內面化되어 있는가(혹은 되어있지 않은가) 하는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서 계층별, 집단별, 세대별, 지역별 차이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설계에도 불구하고 자료수집과 자료해석에 많은 문제에 봉착하였다. 자료수집에 있어서는 첫째, 귀순자들의 경우 면접과정에서 면접자와 응답자 사이에 래포(rapport)를 형성하기 어려웠다. 이는 면접환경과 면접장소가 다소 ‘公的’인 느낌을 주어 응답자들에게 심리적인 부담을 준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모른다’고 대답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였으며 이에 대해 캐묻는(probing) 방법을 사용하기 어려웠다.

둘째, 귀순자들은 대부분 면접자가 하는 질문의 의도와는 다른 방식으로 응답하는 경우가 많았다. 즉 그들은 유사한 질문에 대해 강연과 면담 등을 통해서 여러차례 응답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면접자의 질문에 정확히 대답하기 보다는 '사전에 준비한' 응답으로 대신하는 사례가 많았다. 남한 생활 경험이 많은 귀순자일수록 북한에 대해서 질문자가 필요로 하는 대답을 들려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셋째, 이와 비슷한 문제점으로 귀순자들은 현재 북한사람들이 主體思想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에 대한 자신의 평가 대신에 자신의 태도와 견해를 언급하였다.

자료의 해석상에는 더 많은 문제점이 가로 놓여 있다. 귀순자들의 북한주민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비슷한 내용들이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명밖에 되지 않은 응답자가 0에서 100에 이르는 편차를 보일 정도로 의견이 상반되는 경우도 있어 해석상의 어려움이 제기되었다. 귀순한지 얼마되지 않은 사람일수록 북한주민들의 의식상태를 비교적 진솔하고 직설적으로 대답하여 이들의 응답이 보다 사실에 가깝다는 인상을 받았다.

귀순자들은 북한체제가 싫어서 떠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북한사회에 대한 많은 편견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일 것이다. 따라서 이들이 진술한 내용은 일반적으로 그들이 체제내부에 있을 때 보다는 北韓社會에 대해 좀더 부정적일 것이 분명하다. 그 결과 현재 북한체제 속에 살고 있는 북한주민들의 의식상태, 내면화 상태를 평가절하하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순자들의 증언은 일맥상통하

는 부분이 많았으며, 따라서 극단적인 응답에 대해서도 가급적 다른 의견과의 연계 속에서 흡수시키도록 노력하였다.

2. 分野別 內面化 實態

가. 人間中心의 哲學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인간 중심의 철학은 主體思想이 내세우는 기본적인 내용이다. 主體哲學은 주체사상의 출발점이며 행위와는 별개의 철학적 범주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체사상의 다른 어떤 분야보다 內面化 정도가 높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즉 인간이 만물의 중심이며 인간의 본질을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으로 설명하는 주체사상의 철학적 측면에 대해 북한주민들은 비교적 긍정적으로 內面化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主體哲學의 내면화에 대해 ‘무용지물’이라고 대답한 한 응답자를 제외하고는 부분적이긴 하나 현재의 상태를 상당히 높게 평가하였다. 생활 속에 배여 있어 의식하지 못한다거나 상당수준이라고 평가하였고 최근 이론화시킨 민족제일주의는 높은 신뢰도를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체철학의 내면화에는 학교의 정치사회화 교육이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응답자 중 한사람(C1)은 면접자의 요구대로 백분율로 응

답하였는데 이는 다른 응답자의 내용과도 매우 유사한 것이었다. 그는 인간중심의 主體哲學을 ‘신봉’하고 ‘믿고’있는 북한사람들은 전체주민의 약 70~75% 정도가 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물론 이들이 주체철학을 얼마나 열렬하게 믿고 있는가 하는 정도는 다르며, 크게 3등분 할 수 있다. 內面化의 정도가 완전하고 철저하다고 볼 수 있는 사람(이들은 소위 “주체의 요구대로 하는 사람”이라고 통칭된다)은 약 25%로 보이며, “믿기는 믿으나”(주체사상으로 무장되어 있으나) 의심도 하고 있는 중간부류는 25~30% 정도, 그리고 믿는다고는 하지만 주체사상의 ‘교재’가 없이는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즉 內面化의 정도가 약한 사람이 20% 정도의 분포를 보인다고 볼 수 있다.

〈표 5-2〉 主體哲學의 內面化

	주 체 철 학
C1	70~75%
C2	소년단, 사로청, 군대를 제외하고는 실패함
C3	상당수준
C4	생활 속에 배여 의식못함
C5	무용지물
C6	민족제일주의 100%
C7	20세까지 잘되어 있음
C8	현재는 믿고 있으나 M-L모방이 폭로되면 안믿을 것임

인간중심 철학의 내면화 정도가 이처럼 차이를 보이는 것

은 主體哲學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지적 능력이 수반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인식 수준이 높고 主體思想에 대한 체계적인 학습의 기회도 많아 이해가 빠르고 자기 지식의 체계 속에 흡수하는 능력이 높아 內面化 수준도 높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동년배 집단 중 대학을 진학하는 14%의 사람들은 비교적 주체철학을 빨리 이해한다. 이들은 主體思想이 이미 자기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재가 없이도 자유롭게, 그리고 설득력있게 주체철학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지식을 갖고 있다.

응답자 C1은 內面化되어 있지 않은 25~30%도 主體思想의 철학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였다. 이들 중에는 적지 않은 포섭계층이 포함되어 있으나 그렇다고 이들이 모두 포섭계층인 것은 아니다. 포섭계층 중에도 主體思想을 믿고 실천하는 사람이 많다. 內面化되지 않은 집단으로 분류되는 사람들 중에는 북한체제 자체에 불만을 품은 일부 포섭계층의 사람들이 포함되지만 그보다는 주체철학과 이론을 이해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을 갖추지 못한 부류가 존재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일부 노년층과 저학력층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들은 主體哲學에 대한 인식능력이 없고 더구나 실천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다.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말은 너무 당연한 것 아니냐”라는 한 응답자의 대답처럼 주체철학은 북한주민들의 의식 속에 아무런

장애없이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는 궁극적인 가치관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나. 集團主義 生活原理

集團主義 生活方式을 좋게 생각하고 선호하는 북한주민, 즉 집단주의적 생활가치가 內面化되어 있는 비율은 주체철학의 내면화 정도에 비해 약간 낮게 평가되었다. 주체철학은 사람 중심으로 사고한다는 사상이기 때문에 그 신뢰도가 높을 수 있지만, 집단주의 생활원리는 사람을 조직에 묶어 둔다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본능적 욕구와 배치되어 철학적 측면의 內面化보다는 약간 낮을 수 밖에 없다. 집단주의 가치에 대한 내면화 정도가 이처럼 낮아지는 이유는 개인의 이익을 찾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공산주의적

〈표 5-3〉 集團主義 價値의 內面化

	집 단 주 의 생 활 원 리
C1	60~65%
C2	소년단, 사로청, 군대를 제외하고는 실패함
C3	대부분 수용, 중·상류층이 강함
C4	개인주의(자살도 포함)는 민족반역죄임
C5	사람의 본능과는 배치되나 생활화·습관화되어 있음
C6	비효율적이나 불만·갈등 적음
C7	사회주의체제의 특성
C8	

인간개조가 용이하지 않다는 것이다.

응답자들은 북한주민들이 집단주의의 비효율성 혹은 인간의 본능과 배치된다는 점을 감지하면서도 社會主義 體制의 본질적 특성 내지는 기득권층이 수용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이에 대해 응답자 C1은 주체철학의 내면화보다 약간 떨어진 60~65% 정도인 것으로 평가하였다.

집단주의 가치가 내면화되는 중요한 근거로는 體制問題와 연결시켜서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자본주의는 개인이 생산수단을 소유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고용자로 되어 있지만 사회주의는 생산수단을 공유하기 때문에 노동자 집단이 곧 주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집단주의적 가치는 조직운영에서 개인의 이기심을 억제해야 한다는 미시적 논리일 뿐 아니라 나아가서는 국가와 체제로 이어져 수령론의 이론적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集團主義的 價値를 사회적 규범으로 내걸고 있는 북한은 현재 지방주의적 요소가 거의 사라졌을 정도로 집단주의가 실생활에 흡수되어 있다. 함경도가 빨치산 운동이 있었던 이유로 사회경제적 위치가 다른 지방보다 높고 자부심도 있지만 이것이 사회적인 영향력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평양시의 경우는 특히 조직생활을 잘하는 주민들만 이주시켰기 때문에 자연에 기초한 지방주의는 의미가 없다. 심지어는 개인의 자살도 집단주의적 관점에서 ‘민족반역죄’로 다스리고 있

다는 사실은 중세 신정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집체주의적 현상으로 매우 흥미롭다.

북한의 사회조직과 경제생활은 대중운동을 기본으로 하고 개인중심으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個人主義는 사회경제조직과 규범을 파괴하는 나쁜 것으로 간주되어 개인주의를 추구하는 사람은 주변사람들로부터 따돌림 받는다. 귀순자들은 남한생활에서 처음 경험하는 ‘개인주의’는 분명히 편하고 좋긴 하지만 처음엔 “이러다가 한방에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과 강한 허탈감을 느낀다고 토로한다. 이로 미루어 볼 때 개인주의의 단점만을 편향적으로 교육받은 북한주민은 집단주의의 장점을 개인주의의 단점과 비교하면서 內面化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있다.

그러나 이러한 집단주의 생활방식이 資本主義의 개인주의적 가치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경우에도 유지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이 경우 집단주의적 생활가치를 고집할 사람의 비율은 현재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보인다. 응답자 C1은 이 경우 10% 내지 15%가 낮아진 50%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하였다. 귀순자들은 북한주민들이 지금까지 받아온 집단생활의 의식과 습성이 몸에 배여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갑자기 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그 보다는 점진적인 변화가 일어날 때 개인주의적 가치를 선택할 가능성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개인주의적 가치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제도적으로 허용될 경우 이 가치를 받아들이는 부류는 중산층 이하의 사람들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류층과 중류층은 사회적으로 지시하는 지도적 위치에 있기 때문에 개인주의적 가치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도 이를 선뜻 허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산층 이하 하층민들은 개인주의적 이해관계에 따라 그들의 행위가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집단주의적 가치의 內面化는 다른 집단에서보다 쉽게 와해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일반적으로 북한에서 집단주의의 비효율성과 社會主義 體制의 문제점에 대해서 공개적인 토론을 제한하고 있으며 일부 지식인 계층에 국한되어 있다. 일반주민들은 먹고 사는 생활고에 쫓겨 집단주의의 문제점에 대해 비판할 여유가 거의 없지만, 실생활을 보면 협동농장에서는 함부로 낭비하는 비료를 자기 텃밭에서는 매우 아껴쓰는 등 개인주의적 생활 방식을 취하고 있다.

다. 首領觀

우선 金日成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지지는 “열렬하며 결코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 공통적 내용이다. 아무리 적게 잡아도 북한주민의 60~70% 이상은 金日成을 절대적으로 신봉하고 있으며 많게는 99%의 북한주민이 金日成에 대한 지지

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金日成 숭배의 한 실례로 1990년 11월 강계시 폭파사건이 있었을 때 주민들이 타지역으로 이주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주민의 70%정도가 김일성초상화를 떼고 이동하였다고 한다. 이는 물론 남들에게 보이려고 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지만 휴일에 초상화를 닦는다든가 김일성동상에 나가 꽃바구니를 놓고 오는 충성심을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도 주민의 절반이 넘는다는 사실은 金日成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충성심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표 5-4〉 首領觀의 内面化

	金日成	金正日
C1	80~85%	45%
C2	소년단, 사로청, 군대를	제외하고는 실패함
C3	60~70%	50%
C4	존경함	20%
C5	열렬함	낮음
C6	대부분 신뢰	인민들의 지지 있음
C7	80%	40%
C8	99%	60~70%

金日成에 대한 숭배사상은 이에 더하여 북한주민들은 김일성이 모래로 쌀을 만들었다고 해도 그대로 믿을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한 응답자(C5)는 1984년 金日成이 순안비행장에 나타났을 때 응답자 본인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흘렀

을 정도이며, 북한의 역사를 연구한 한 응답자(C6)는 金日成이 항일운동을 했다는 사실에 대해 북한주민의 대부분이 믿고 있으며 본인도 여기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에 허덕이면서도 수령과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칠 각오를 하고 있고, 金日成에 대해 죽는다는 표현은 불경한 일로서 있을 수 없으며, “위대하신 수령님께서 머리가 희어지셨다”라고 표현하는 등 가히 김일성 종교국가, 김일성왕조국가 상태라고 할 수 있다.

金日成을 이처럼 지지하는 이유는 여러가지로 설명하고 있지만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는 항일운동을 주도했으며 日帝를 타도하고 민족해방을 성취시켰다는 것이며, 둘째는 韓國戰爭에서 美國과 대결하여 승리했다는 것이고, 셋째는 戰後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한 업적이 있다는 것이다. 그중 항일투쟁을 통해 日本으로부터 조국을 해방시켰다는 내용과 한국전쟁에서 美國과 싸워 이겼다는 두 가지 사실, 즉 日本과 美國이라는 금세대의 거대한 두 제국주의를 물리친 영웅이라는 생각이 뿌리 깊게 박혀 있다. 이런 관점에서 북한주민들은 金日成이 우리민족의 자존심을 살려 놓았다는 식으로 믿고 있다.

한편 金日成의 ‘인간적’ 측면도 숭배의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金日成이 현지도시 농민들과 숙식을 같이 한다든가 농민들의 고충을 같이하며 아픈사람과 같이 울고

슬퍼한다는 인간적인 포용력이 강조되기도 한다. 또한 자기 부모는 돈 몇 푼이 없어서 자기에게 조그만 것도 못해주는 데 金日成은 모든 것을 해주기 때문에 고맙게 생각한다는 등의 얘기를 신뢰의 근거로 꼽고 있었다. 북한체제나 사회가 싫어 남한에 왔으나 金日成에 대해서는 나쁜 감정은 갖고 있지 않다고 얘기하였다.

반면 金正日에 대한 주민들의 지지도는 金日成과 비교할 때 7 대 3 정도로 낮게 평가되었다. 金正日에 대한 지지도는 20% 혹은 “낮다”고 응답한 사례를 제외하면 대체로 40~50% 선으로 평가하였으나, “인민들의 지지가 있다”든지 60~70%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높게 평가한 응답자도 있었다. 이는 귀순자들이 내린 평가이기 때문에 북한주민들의 실제 지지도는 이보다 높을 수도 있을 것이다. 북한에서 金日成과 金正日을 별개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金日成과 金正日에 대한 지지율이 각각 어느 정도인가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열렬하게 지지하고 있는가 하는 정도의 문제로 해석할 수도 있다.

金正日을 지지하는 북한주민들은 金正日에 대해 나름대로 실무적이고 통솔능력이 있다고 믿고 있다. 특히 金正日이 1973년 이후 정치·경제·사회 각 분야에 세력기반을 구축해 놓았다는 것과 현재 공식인 국가보위부와 黨 조직지도부를 金正日이 관장하고 자기 주변에 많은 정보요원⁸²⁾을 활용하여

바깥세상이 돌아가는 정세를 비교적 정확히 판단하고 있다는 점이 신뢰의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아울러 金正日이 김정숙만을 어머니로 여기며 김성애는 “낳아주지도 길러주지도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선호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점도 지지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뿐만 아니라 金正日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는 金正日의 퇴폐적이고 자유분방한 성격이나 돌출적이고 예상치 못하는 행동 등도 긍정적으로 이해되고 있는 듯 보인다. 즉 金正日이 학교에서의 남녀관계가 너무 딱딱하다고 하면서 인민학교와 중학교에서 남녀반 구분을 폐지하고 남녀를 함께 교육시키도록 한 조치는 金正日의 자유주의적인 성격에 기인하는 것이라는 식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음악에서도 남한에서와 같은 외설스러운 측면을 지닌 보천보전자악단이나 왕재산경음악단을 만들어 보급시킨 것은 金正日의 업적으로 특히 젊은 이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金正日의 돌출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성격도 북한주민들에게는 이것이 북한의 의도대로 “통이크고 대담한” 성격으로 학습되어 있는 형편이다.

82) 부모가 고위 직책에 있지 않고 신분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자들 중에서 수재들로 구성된 김정일의 사조직을 일컬으며 이들은 김정일의 총애를 받으면서 많은 정보와 조언 및 정책적 자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金正日에 대한 불신도 적지 않다. 金正日을 지지하지 않는 북한주민들은 金正日이 金日成과 비교해 볼 때 내세울만한 것이 많지 않다고 생각한다. 金正日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의 논거는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金正日是 지도자로서의 경험이 없으며 지도자적 자질이 없다. 金正日是 金日成과 같은 항일운동의 역사도 없으며, “도대체 김정일이 조선을 위해 무슨 일을 했길래 그 사람이 나서는가”라는 말을 한다. 金正日이 지도자로 나서는 것은 김일성의 아들이라는 이유밖에 없으며 김일성이 자기에게 충성스럽다고 밀어주는 것 이외의 지도자적 장점이 없다, 즉 金日成의 후광만으로 인기를 얻고 있기 때문에 지도자로서의 인물은 못된다는 것이다.

둘째, 金正日이 등장하면서 북한경제가 침체되었으며 북한주민의 생활도 이전보다 더 어려워졌다. 金正日이 시행한 일련의 정책, 즉 70일전투, 섬멸전,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 200일전투 등을 경험하면서 주민들은 이 정책들에 대한 불만이 매우 크다. 오히려 1960년대에는 잘살았다고 느끼는데 비해 金正日이 등장한 이후는 주민생활이 악화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金正日이 추진한 정책들을 신뢰하지 않는다.

셋째, 金正日에 대한 개인적 추문이 많고 지도자적 품모를 갖추고 있지 않다. 특히 金正日 개인의 성적 추행과 성도착에 대한 소문들은 사실화되어 金正日에 대한 불신을 증대시

키고 있다. 예를 들어, 金正日은 ‘기쁨조’를 만드는 등 여자를 너무 밝힌다든지, 金正日이 여섯번째만에 아이를 낳았다고 얘기함으로써⁸³⁾ 金正日의 남아선호사상과 산아정책에 위배된 김정일의 행태를 노골적으로 비판하기도 한다. 또한 김정일의 외모가 전혀 호감이 가지 않는다는 신체적 조건과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거의 심리적인 문제까지 대두되어 金正日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음을 지적한다.

金正日에 대한 지지도는 1990년대 들어 급격히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⁸⁴⁾ 60이 넘는 노년층에서는 金正日을 비난하는 사람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金正日이 1992년 군최고사령관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金正日이 軍출신이 아니라는 점에서 金正日에 대한 냉소적인 태도가 일반주민 사이에 확산되었다.

사실 金日成·金正日을 별개의 인물로 간주하기 힘들며 이들의 이름을 수식어 없이 거론하는 것 자체가 힘든 북한사회에서, 그리고 부자권력승계에 대해 선불리 반대하지 못하는 북한의 현실에서 金日成·金正日에 대한 실제적인 지지도

83) 이러한 발언은 1988년 한 군관이 공식석상에서 제기함으로써 북한주민들 사이에 널리 확산되었다.

84) 이는 1988년까지만 해도 위에서 기술한 것보다 김정일의 지지도가 높았으며 체제의 불만을 김정일에게 돌리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는 평가에 근거한다.

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 金父子에 대한 신봉이 어디까지 金日成·金正日을 위한 것이며 어디까지 자신과 가족을 위한 것인지를 구분하는 것 또한 쉬운 일은 아니다.

金日成·金正일에 대한 충성심은 성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 성분이 좋은 사람은 金日成·金正일에 대해 일반적으로 좋게 이야기한다. 북한주민 전체를 일직선상에 놓고 볼 때 일반적으로 주민의 10% 정도는 金日成·金正일에 대한 열렬한 광신도라고 볼 수 있으며, 반대쪽의 10%는 이들에 대해 강한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즉 10%의 열렬한 지지자들은 김일성동상을 매일 아침 정성스레 청소하며 김일성초상화에 먼지만 묻어도 큰 일이 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체제불만자 10%(이중 8할 정도가 포섭계층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다.) 중에는 피해와 공포의식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金正일에 대한 간접적인 비판을 서슴치 않는 대담성을 표출하는 사람도 있다.

나머지 사람들은 정치에 대한 언급은 삼가며 경제가 잘못 된 것은 金日成·金正日 때문이 아니라 중간간부들의 잘못 때문으로 생각한다. 이들 중에는 경제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개방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으나, 자기 자신이 불만이 약간 있더라도 사회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金父子에 대한 충성노선을 따를 수 밖

에 없으며, 혹은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金父子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이다. 金日成에 대한 충성심의 약화는 시간이 걸려야 해결될 문제이며 金正日에 대한 충성심은 경제문제 해결에 따라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라. 우리식 社會主義

主體思想이 강조하는 마지막 분야로서 체제문제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내면화 정도를 살펴보자. 여기에 포함되는 내용은 공산당독재의 정치체제, 자본주의의 멸망과 사회주의의 승리에 관한 문제, 경제문제 등을 들 수 있다.

우선 共產黨 一黨獨裁에 대해서 북한주민들은 타체제와 비교해 볼 수 있는 정보가 통제되고 비판이 차단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뢰, 혹은 부분적인 신뢰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北韓體制에 불만을 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10%, 혹은 주체철학이 內面化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는 25% 정도만이 일당독재에 대해 부정적이며 나머지 사람들은 대체로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현 체제 내에서 부분별, 이슈별로 반대가 있을 수는 있지만 共產黨 一黨統治를 부정하기는 힘들다.

북한주민들이 일당독재를 내면화하고 있는 주요 이유로는 金日成·金正日의 독재를 제외하고는 나름대로 '북한식 민주주의'가 보장되어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5-5〉 우리식 社會主義의 內面化

	공산당독재	사회주의 체제	경제효율성	자립경제
C1	80%	40%	50%	70%
C2	소년단, 사로청, 군대를 제외하고는 실패함			
C3				
C4	부분적 신뢰	믿고 있음	낮음	
C5			낮음	높음
C6	무지해서 적응	100%*	30~40%	자부심·공지
C7	받아들임	신뢰		
C8		불만 적응	부패	

주: * 표는 우리민족제일주의

예를 들어, 백학림장군과 젊은 소좌의 상호비판은 북한식 민주주의를 자부하는 좋은 얘기거리로 회자되고 있다.⁸⁵⁾

黨생활총화에서의 상호 비판할 수 있는 근거는 黨차원에서 모든 사람이 동등한 黨員의 자격을 갖는다는 黨규약 원리에서 시작된다. 행정기관에는 위계질서와 지위의 격차가 존재하지만 당원자격으로는 지위 고하 간에 상호 비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설명한다. 만약 상급자가 하급자를 비판하지 않으면 상급자가 무책임하며 원칙이 없다는 비난을 받으며, 하급자가 상급자를 비판하지 않으면 아침분자라는 비

85) 당생활총화시 젊은 소좌 한사람이 백학림에게 직무태만 사실을 지적하면서 맹렬히 비판했을 때 백학림은 눈물을 흘리며 반성했다는 감동적인 얘기를 자랑거리로 내세우며 북한의 당생활총화와 상호비판을 북한식 민주주의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지적하였다.

난을 면치 못한다. 역으로, 상급자가 하급자로부터 비판을 받지 못하면 그 상급자는 官僚主義 또는 권위주의적 행동과 태도를 자행했기 때문이라고 비판을 받는다. 이러한 원칙에도 불구하고 평소에는 상하간 비판이 의례적인 지적사항들로 적당히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상사에 대해서 비판을 제기하기 힘들다. 특히 상급자에 대한 비판은 대부분 黨 조직의 사전조율을 거치며, 黨조직 차원에서 상호비판을 통해 조직규율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 이를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일당독재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북한사회가 철저히 통제되어 있기 때문에 억압체제의 문제점을 주민들이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북한 사회주의는 黨의 통제력에 있어서 러시아와 큰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러시아는 舊蘇聯의 브레즈네프 시대부터는 黨통제가 완화되었으며 사하로프 같은 사람의 망명도 허용되는 사회이지만 북한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다. 북한주민들이 일당독재에 대해서 반항을 하지 않고 순응하며 살아가는 이유도 북한사회의 모순에 대해 확신할만한 정보를 얻을 수 없으며, 문제점에 대해서 생각해 볼 환경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이를 증명한다.

정치적 자유가 조금이라고 주어진다면 현재상황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북한주민들은 남한의 정치체제가 복수정당

으로 국민들의 자유로운 정치활동을 허용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多黨制는 정치적 혼란이라는 등식을 주입시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고 이를 오히려 首領觀과 직결시켜 수령의 역할을 부각시킨다. 일사불란하게 편제된 일당독재 체제는 최고의 수위에 수령이 존재하여 지시를 내려야 한다고 합리화하고 있다.

經濟體制에 대해서 북한사람들은 대부분 資本主義가 멸망하고 社會主義가 승리할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북한의 많은 사람들은 “불만이 적음,” “신뢰,” “믿고 있음” 등의 응답에서 느낄 수 있듯이 아직도 ‘혁명의 미래’에 대해서 믿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해외유경험자 및 중국친척 등 인적 통로와 라디오 방송 등을 통해 南韓의 경제발전상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주민의 절반은 자본주의 경제제도가 사회주의보다 효율적이라는 사실을 감지하고는 있지만 남한이 북한보다 얼마나 잘살고 있는 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은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모르고 있다. 오히려 北韓이 南韓보다 잘살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30~40%(C6) 혹은 50%(C1)나 된다. 따라서 아직까지 남한에 대해 ‘동경’할만한 정보유입은 차단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여기서 북한의 경제문제에 대해 응답자들이 제시한 견해는 북한주민들의 社會主義 體制에 대한 내면화의 중요한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의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있고 식

량배급이 중단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도 응답자들은 “밀밥을 먹든지 강냉이를 먹든 살기는 산다,” “다 사람이 살게되어 있다,” “북한의 대중운동이 북한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 지 아는 사람은 ‘두끼먹기 운동’이라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것이다,” “굶어 죽는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먹고 살수만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옛날처럼 농사짓고 살면 살 수 있을 것이다” 등의 방어적이며 체념적인 응답을 하는 것으로 보아 북한 사회주의 체제를 신봉하고 있는 사람들의 심리상태를 간접적으로 읽을 수 있다.

응답자들에 의하면, 북한의 경제사정, 특히 식량사정이 구조적인 문제로부터 발생하는 것이지만 개인적인 무절제가 상황을 악화시키는 점도 있음을 지적한다. 즉 식량배급이 15일 만에 한번씩 실시되는데 배급분의 식량을 15일로, 그리고 다시 3등분으로 정확히 나누어서 먹지 않고 계획없이 무절제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가서는 한두끼를 굶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한 경제문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북한이 못산다고 하지만 북한경제는 軍경제와 黨경제, 민간경제로 분리되어 있고 아직 軍경제는 튼튼하기 때문에 전쟁물자를 조금만 풀면 잘 살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고 한다.

북한은 이제 사회주의에 대해 경제적 효율성을 공개적으로 주장하지는 않는다. 제Ⅳ장에서 지적하였듯이 북한은 현

재 사회주의의 분배정의와 사회적 혜택 등으로 우월성을 교양하고 있다. 자본주의에 대해 ‘부익부 빈익빈’ 사회로, 사회주의에 대해서는 “골고루 잘사는 사회”로 등식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식 社會主義에 대한 자부심(C6)과 신뢰심(C5)을 갖고 있으며, 우월감을 갖고 있는 부류는 약 70%(C1)가 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들은 또한 사회주의 제도 자체나 경영방식이 나빠서라기 보다는 총리 이하 중간간부들의 잘못 때문에 사회주의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고 믿고 있다.

전반적으로 볼 때 북한사회가 목표하고 공식적으로 주장하는 만큼 성공적으로 內面化되어 있다고는 볼 수 없으나 상당한 정도의 믿음과 확신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일단 內面化된 사람들은 이것을 의심하고 부정하는 것이 많은 죄의식과 충격을 수반하기 때문에 내면화된 가치의 변화는 그만큼 어렵다고 하겠다.

3. 內面化의 社會集團別 差異

귀순자들이 평가한 북한주민들의 主體思想 內面化 실태를 분석해 볼 때 전반적으로 계층·계급별, 연령·집단별, 지역별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가. 階層·階級別

주체사상의 내면화 정도는 북한이 구분하는 핵심계층, 기본계층, 포섭계층의 구조와 연결되어 있다. 북한사회의 핵심분자들은 주민의 25~30%인 전사자·피살자가족이며 이들은 北韓體制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계층이다. 그 다음으로 기본계층이 50%, 포섭계층이 20% 정도로 구성되어 있다. 포섭계층이 모두 체제불만자이거나 內面化가 안 된 사람들인 것은 아니나 이들중 많은 사람들이 주체사상을 내면화하지 못하고 있다. 아직도 북한주민의 계급의식은 강한 편이며 핵심계층과 포섭계층은 상호 간의 결혼도 회피할 정도로 계급적 사고를 하고 있는 형편이다.

교육수준에 따라서도 내면화 문제는 달라진다. 특히 교육수준이 높은 인텔리 계층은 主體哲學 이론을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내면화 정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북한사회의 문제점을 잘 아는 사람들이며 가치와 생활이 이중적인 경우가 많다. 즉 교육정도가 낮은 계층은 이해의 속도와 수준에서는 뒤질지 모르나 集團主義 생활가치나 首領觀 등 생활 및 행위와 관련해서는 실천하는 정도가 높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主體思想의 內面化는 이해와 실천문제를 두고 계층 간의 긴장과 갈등이 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사무직 근로자들은 主體思想을 이론적으로 잘 이해하고 설명하는데 능

속하지만 실천적 측면에서는 다소 약하다. 반면, 비사무직 근로자들은 박식하지는 않지만 실천하는 데서는 강하다. 비사무직 근로자들은 주체사상을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더 낫다고 주장하는 충돌사례도 발생한다.

집단주의 생활양식에 대해서는 특히 勞働者階級이 직맹을 통한 집단주의 교양과 집단생활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가치를 더 철저히 믿고 있다고 본다. 반면, 農民階層은 집단주의 생활양식의 가장 취약한 고리로 평가된다. 협동농장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농민계층은 계층 간의 이동이 거의 없는 사회에서 성분상 포섭계층과 같은 처지여서 장래의 희망이 없기 때문에 사회주의의 집단주의 가치에 동조하지 않는 부류로 볼 수 있다.

나. 年齡·集團別

主體思想의 內面化 정도에서 특징적인 것은 연령이 낮을수록 내면화의 정도가 높다는 점이다. 연령·집단별로 구분했을 때 少年團과 社勞靑까지는 사상무장이 잘되어 있으며 군대복무시까지도 비교적 사상무장이 잘되어 있는 편이다. 또한 60대, 70대인 혁명 1세대나 1.5세대들은 집단주의적 생활양식에 오랫동안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변하기 힘든 집단이다. 사상적 내면화가 가장 가변적인 집단은 30대를 전후한

혁명 3세대들로, 대학시절과 졸업후 사회생활 초기단계인 이들은 환경변화에 매우 민감하다.

主體思想의 內面化 측면에서 소년단과 사로청 교육은 일단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되며 軍隊에 입대한 청년들도 아직 ‘사회물을 못먹은 사람들’이라서 主體思想에 대한 일종의 광신자로 볼 수 있다. 사로청과 군대조직은 집단주의 생활능력이 강하기 때문에 집단주의를 신봉하는 면에서는 이러한 부문별 조직체에 속해 있는 집단이 강력한 보루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당국도 이들 집단을 체제유지에 중요한 세력으로 간주하여 정권유지에 활용하고 있다.

소년단과 사로청 및 군대는 ‘사회’의 경험이 없어서 북한당국이 가르치고 교육하는 체제의 가치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 이들은 가족과 그들이 소속한 조직 및 국가로부터 생활의 보호를 받으며 생활과 생존의 걱정이 없기 때문에 主體思想이 가르치는 이상향에 심취하게 된다. 청소년기의 이상향에 대한 이러한 열정이 과거 공산주의나 獨逸의 파시즘과 같은 급진적인 정치운동을 확산시키는데 이용되었다는 점을 돌이켜 보면 북한청소년들의 이데올로기적 지향성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단 ‘사회’에 진출하고 결혼을 하여 직장과 가족으로 연결된 현실생활에 매이게 되면서 主體思想과 현실의 괴리감을 느끼며 회의, 권태기가 시작된다. 가족관계와 직장

관계의 확대는 더 많은 책임을 동반하고 主體思想교육은 생활의 부담으로 느껴진다. 주체사상의 가치주입이 가장 유동적인 이 젊은층들 사이에는 “주체사상을 할아버지때부터, 아버지때를 거쳐, 지금까지 해야할만큼 중요한 것이냐”하는 식의 해이한 의식경향을 보인다. 많은 청소년들이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3, 4년이 되면 內面化된 主體思想이 급격히 무너지는 경험을 한다.

그러다가 나이가 점점 들수록 체념하는 형태의 내면화가 다시 진행된다. 이 시기는 일생에서 中年期에 해당하는데 이때는 主體思想에 대한 열의가 식어가는 반면 학습에 대한 부담과 육체적·정신적 능력의 한계로 육체적·정신적 질병을 앓기도 한다. 老年期에 이르면 사회주의의 모순을 알고 있지만 알면서도 행동하지 않고 현실에 안주하는 주기를 밟는다.

다. 地域別

主體思想의 內面化 정도는 도시와 농촌 간에도 차이가 있다. 이는 우선 도시와 농촌의 생활환경에서 연유한다. 일반적으로 농촌은 협동농장과 같은 집단생활을 하고 있어 집단생활 가치를 도시보다 선호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와는 반대현상을 보인다. 農村에서는 현재의 제도상 집단생활을 하는데 도시보다 불편한 점이 많다. 都市에서는 치료와 교육, 상업유통, 목욕탕, 영화관 등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

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지만, 농촌에서는 생활에서의 불편함이 많이 따른다. 따라서 집단주의나 응집력에 있어서 농촌이 오히려 낮은 것이 현실이다.

지리적 이동 및 사회적 이동과 관련해서도 농촌은 상대적으로 열세에 놓여 있다. “대를 이어 충성하자”는 구호에 따라 간부의 자식은 간부가 되지만 농장원의 자식은 농장원으로 자라도록 강요된다. 지리적 이동이 제한되어 있는 북한에서 農村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군에 입대하는 것이다. 군제대후 다시 농촌에 돌아오는 것이 사회규범이지만 때로는 탄광지역으로 ‘무리배치’(집단배치)되어 노동자로서 일할 수 있고 7년 이상 근무하면 黨員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농촌의 열악한 사회적 환경 때문에 사회주의나 主體思想에 대한 충성심은 그만큼 약하다.

이렇게 볼 때 농민을 혁명의 중심세력으로 포섭할 수 없으며 노동자만이 혁명의 핵심세력으로 평가한 맑스의 주장처럼, 북한에서도 도시에 거주하는 노동자들의 내면화 수준은 높은 반면, 농민들은 내면화 정도가 약하여 체제유지의 약한고리로 평가된다.

第Ⅵ章 結 論

主體思想은 유아시절부터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각 생애주기에 따른 체계적이고 반복적인 학습을 통하여 사회화의 순환과정을 겪으면서 내면화된다. 가치판단이 아직 서지 않은 유아기의 자극-반응이라는 조건반사적 학습과 인민학교의 덕성교육, 고등중학교의 역사교양, 그리고 성인기의 등급별·직능별 학습체제는 북한주민들로 하여금 主體思想을 내면화하도록 몰아가는 거대한 학습통제망을 이루고 있다. 그 속에서 북한사람들은 ‘사회정치적 생명’에 의미를 부여하는 ‘주체의 인생관’을 따르도록 ‘규범적 강제’의 상황에 놓이게 된다.

그러나 내면화의 수준이나 정도가 사회전체로 볼 때 언제나 동일한 것만은 아니었으며, 통시적으로 볼 때 1960년대 중반에 매우 고조되었다가 그 이후 점차 약화되는 추세로 분석된다. 이는 主體思想의 내면화가 치밀한 교양교육체계를 통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교양교육 내용이 경험적 사실로 뒷받침될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동시에, 경험적 사실이 뒤따르지 못한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이를 합리화하는 이론화 작업을 추진하여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社會主義圈 崩壞 이후 경제침체의 가속화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당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론적 변형과 정당화는 특히 젊은 세대

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경제침체를 벗어나기 위해 취한 改革·開放의 결과가 사회분화 현상을 증대시켜 主體思想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主體思想의 내면화 수준은, 분야별로 다르게 나타나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비교적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해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主體思想은 여전히 북한체제를 지탱하는 강력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主體思想을 대체할만한 합리적 대안을 찾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수령론, 주체철학, 우리민족제일주의 등은 정권 및 體制維持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내면화된 가치로 분석된다. 그러나, 집단주의와 경제적 효율성은 북한주민들의 가치기준으로서 매우 약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내면화 정도는 간부계층과 하층계급에서, 그리고 소년단·사로청·군대 집단에서 높게 나타나는 반면, 인텔리 계층과 중상층, 그리고 연령별로는 사회생활 초년기를 겪는 30대에서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내면화의 가장 심각한 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사회분화 현상은 1984년 이래 추진해온 소폭의 改革·開放政策에 기인하고 있다. 지난 10여 년 간의 제도적 개혁·개방은 물질적 가치 추구에 대한 주민들의 의식변화와 부정부패 및 대외 정보개방을 가져와 주체사상의 내면화에 상당한 타격을

주었다. 그 결과 서구사회주의 체제의 붕괴 및 북한경제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에 대해서 정보 통제와 主體思想의 變形(경제발전의 우위로부터 사회정책의 우월성으로)을 통하여 내면화를 유지할 수 있었으나, ‘자본주의적’ 사회분화 현상을 통합하는 데는 내면화의 한계성이 노정된 것이다.

이같은 문체점은 金日成 死後 金正日의 유일체계 유지 및 대외개방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金正日은 김일성만큼 절대적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과거 金日成 생존시와는 달리 수령론에 대한 내면화가 매우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金正日이 당분간 유일체계를 유지할 수 있다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볼 때 유일체계의 내용을 약화시키든지 아니면 집단지도체제와 같은 형태로의 전환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金正日은 또한 북한주민들의 생활수준이 남한에 비해 훨씬 떨어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경제를 살리지 않으면 정치적 기반이 약해질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북한은 核問題 해결 과정에서 체제보장 이외에 경제난 해결 위주로 협상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나 동시에 金正日은 대내개혁과 대외개방이 몰고 온 사회적 부작용과 의식변화가 주민들의 내면화를 와해시키고 체제를 붕괴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인

식하고 있기 때문에 ‘통제된 개방정책’ 이외의 다른 선택은 없을 것이다.

북한이 나진·선봉 경제특구와 같은 ‘통제된 개방정책’을 가속화할 경우, 북한내부지역으로의 情報流入의 증대는 주민들의 합리적 대안의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이미 합영법과 소비품증산운동으로 어렵פות하게나마 외부정보를 접하게 되었고 돈에 대한 意識變化를 일으킨 북한주민들은 경제특구의 확대 및 활성화로 더 많은 해외정보와 ‘자본주의적’ 생활양식에 대한 정보를 접하게 될 것이다. 合理的 選擇은 행위자의 정보의 수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정보유입에 따른 비교개념의 확산은 주민들로 하여금 합리적 선택의 가능성을 더욱 높여줄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북한으로서는 사회통제를 최대한 강화하면서 소위 북한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지속적으로 학습시키며 선전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주민들은 북한정권이 내걸고 있는 북한식 사회주의의 장점과 새롭게 얻은 정보들을 종합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아직까지 외부의 정보가 제시하는 대안에도 불구하고 북한주민들은 주체철학과 수령론, 민족제일주의 등 主體思想의 이념을 고수하는 ‘현상유지’의 안전한 대안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회통제의 이완에 따른 정보의 양이 증대되면

될수록 그 반대쪽으로의 선택 가능성은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현재 보이고 있는 內面化의 사회심리적 해체 정도와 속도가 북한체제의 존속에 장애를 가져올 만큼 심각한 정도는 아닌 것으로 평가되지만, 특구의 활성화가 ‘조정기’ 동안에 가시화되지 않고 사회적 부작용이 근절되지 않는다면, 분단과 미제국주의, 그리고 식민지 해방이라는 역사적 경험과 연결지어 社會主義 體制의 ‘도덕성’과 ‘우월성’으로 체제를 지탱해 왔던 정당성의 근거는 그만큼 약해질 것이다. 이같은 사태의 지속은 북한주민들의 동요를 유발하고 정책적 선택과 결정을 둘러싼 엘리트 간의 갈등과 분열을 일으킬 가능성이 충분히 내재해 있음을 시사해준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내면화 실태를 검토해 볼 때 설사 金正日政權이 붕괴된다 하더라도 북한사람들이 사회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다. 북한사람들 중 상당수가 資本主義에 대해 부익부, 빈익빈의 결과를 초래하는 제도로 믿고 있고, 자본주의가 되면 자기들은 모두 하루아침에 극빈자가 된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다. 이는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북한주민들 중에는 아직 社會主義 體制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는 사람이 많지 않음을 의미한다. 또한 북한주민들은 ‘북한식’ 경제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치적 통제를 용인하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統一過程에서 초기에는 북한 내에 사회주의 표방을 허용하고, 점진적인 교류·협력을 통하여 주민전체가 자본주의의 생활과 제도를 거부감없이 익힌 다음에 자본주의 체제로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參考文獻〉

1. 單行本

국토통일원. 「북한주민 의식구조 변화실태」. 서울: 국토통일원, 1983.

김경웅. 「정치교육론」. 서울: 유풍출판사, 1982.

金聖哲. 「主體思想의 理論的 變化」. 서울: 民族統一研究院, 1993.

김용학. 「사회구조와 행위: 거시적 현상의 미시적 기초를 찾아서」. 서울: 나남, 1992.

김일성. 「김일성선집 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55.

———. 「김일성저작집 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 「김일성저작집 1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 「김일성저작집 1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金忠男. 「政治社會化와 政治教育」. 서울: 法文社, 1982.

남북문제연구소. 「교과서를 통해서 본 북한」. 서울: 남북문제연구소, 1994.

도홍렬. 「김일성주체사상 그 사실적 검증」. 서울: 남북문제연구소, 1993.

박용곤·김화효. 「주체사상입문」. 동경: 구월서방, 1989.

裴燦福. 「南北韓의 政治社會化: 基本理論과 政治教育 變遷過

- 程」, 서울: 法文社, 1989.
- 북한문제연구소. 「북한용어 300선집」, 서울: 내외통신사, 1993.
-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편. 「조선전사 28」, 평양: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1981.
- 사회과학출판사. 「철학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 오세철. 「문화와 사회심리이론」, 서울: 박영사, 1986.
- 尹德重. 「現代 政治社會學」,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87.
- 이상우. 「북한의 주체사상」, 서울: 통일연수원, 1991.
- 이은죽. 「북한사회의 체제와 생활」, 서울: 法文社, 1993.
- 李宇榮. 「北韓 政治社會化에서 傳統文化의 役割」, 서울: 民族統一研究院, 1993.
- 전병재. 「사회심리학」, 서울: 경문사, 1981.
- 崔銀姬·申相玉. 「金正日왕국 上: 홍콩-평양-비엔나 탈출까지」, 서울: 동아일보사, 1988.
- . 「金正日왕국 下」, 서울: 동아일보사, 1988.
- 통일원. 「북한개요 92」, 서울: 통일원, 1992.
- . 「최근 북한주민 의식변화 동향」, 서울: 통일원, 1992.
- . 「독일통일 3년 현황과 전망」, 서울: 통일원, 1994.
- Berger, Peter L. *Invitation to Sociology*. 한완상 역. 「社會學에의招待」, 서울: 현대사상사, 1977.
- Bertsch, Gary. Clark, Robert P. and Wood David M. *Comparing*

- Political Systems: Power and Policy in Three Worlds.*
New York: John Wiley & Sons, 1978.
- Campbell, Agnus, et al. *The American Voter.* New York: John Wiley & Sons, 1960.
- Dawson, Richard E. Prewitt, Kenneth. and Dawson, Karen S. *Political Sociolization.* Little, Brown and Company, Inc., 1977. 鄭世九 譯. 「政治社會化」. 서울: 法文社, 1981.
- Friedrich, Carl J. and Brzezinski, Zbigniew K. *Totalitarian Dictatorship and Autocracy.* 최운지 역. 「전체주의 독재 정치론」. 서울: 정림사, 1971.
- Giddens, Anthony. *The Construction of Society: Outline of the Theory of Structuration.* Californi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4.
- Jaros, Dean. *Socialization to Politics.* New York: Praeger Publishers, 1973. 林永喆·金恒元 公역. 「政治社會化」. 서울: 地球出版社, 1986.
- Lane, David. *The Socialist Industrial State: Towards a Political Sociology of State Socialism.* Boulder, CO: Westview Press, 1976.
- Lane, Robert E. *Political Ideology.* New York: The Free Press, 1962.
- Miliband, R. *The State in Capitalist Society.* London: Weidenfeld

& Nicolson, 1969.

Parsons, Talcott. *The Social System*. New York: The Free Press, 1951.

2. 論文

고청송. “사회주의요? 팍 썩은 너물천국이야요.” 「신동아」 (1994.2).

김 덕. “정치사회화.” 한국의국어대학교 소련문제연구소 편. 「소련정치과정」. 서울: 정음문화사, 1985.

김병로.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사회통합적 성격에 관한 분석.” 「일죽 김광수교수 회갑기념논문집」 (1993).

김영규. “북한은 바뀌고 있는가?: 사회”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학술회의 논문, 1989).

김영성. “북한은 전쟁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체제.” 「월간조선」 (1994.3).

김일성. “우리나라 사회주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자 (1990.5.24).”

김정민. “외화벌이 테크노크랫 귀순자 김정민씨가 말하는 북한의 세시.” 「통일」 (1994.2).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헌집」.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 . “인민생활을 더욱 높일데 대하여(1984.2).”
- .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1986.7.15).”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헌집」,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 . “사회주의 건설의 역사적 교훈과 우리당의 총로선 (1992.1.3).”
- . “혁명적 당건설의 근본문제에 대하여(92.10.10).” 도홍렬. “북한 청소년의 사회화 실태.” 「통일정책」, 4권 4호 (1978).
- . “정치문화와 정치사회화.” 최명 편. 「북한개론」. 서울: 을유문화사, 1990.
- . “북한의 사회문제와 사회정책 전망.” 「통일문제연구」, 제4권 4호(1992).
- 박영옥. “북한의 지배이데올로기와 초기 정치사회화: 사회화 매체를 중심으로” (1993년도 후기 사회학대회 발표논문).
- 徐載鎭·金台鎰. 「北韓住民의 人性研究」. 서울: 民族統一研究院, 1992.
- 안명진. “초대형 지하 서울 ‘세트’에서 스파이 훈련 받았다.” 「월간중앙」 (1994.4).
- 온만금. “북한의 정치사회화 실태와 결과분석.” 「'92 북한-통일연구 논문집(5): 북한의 정치사회화 실태분야」. 서

을: 통일원, 1992.

이상희. “북한의 주민동원에 관한 연구.” 『’92 북한-통일연구 논문집(5): 북한의 정치사회화 실태분야』. 서울: 통일원, 1992.

이중석. “조선로동당의 指導理念과 構造變化에 關한 研究: 主體思想과 唯一指導體系를 중심으로” (成均館大學敎政治外交學科 博士學位論文, 1993).

———. “유일체계의 수립과정.” 장을병 외 지음. 『남북한 정치의 구조와 전망』. 서울: 한울, 1994.

전성우.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본 독일통일 3년.” 『통일문제 연구』, 제5권 4호 (1993 겨울).

조기숙·이성봉. “북한체제변동의 정치경제학.” 『북한연구』, 제4권 4호 (1993 겨울).

최장집. “그람시의 헤게모니 개념.” 『국가이론과 분단한국』. 서울: 한울, 1990.

통일원. “북한주민 의식변화 동향.”

Adelson, Joseph and O'Neill, Robert P. “The growth of political ideas in adolescence: the sense of commun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 (July 1966).

Coleman, James. “Social Theory, Social Research, and a Theory of Actio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1 (1986).

Converse, Philip. and Dupuex, Georges. “Politicization of the

- electorate in France and the United States." *Public Opinion Quarterly*, 26 (Spring 1962).
- Eberstadt, Nicholas and Banister, Judith. *North Korea: Population Trends and Prospect*. Washington, D.C.: U.S. Bureau of the Census, 1990.
- Evans, Alfred B. Jr. "Problems of Conflict Management in Russian Politics." *The Journal of Communist Studies*, Vol. 9, No. 2 (June 1993).
- Halliday, Jon and Cumings, Bruce. *Korea: The Unknown War*. New York: Pantheon Books, 1988.
- Inkeles, Alex. "Social change and social character: The role of parental mediation." *Journal of Social Issues*, 11 (May 1955).
- Kelman, Herbert C. "Three processes of social influences." in Hollander, E.P. & Hunt, R.G. *Current Perspectives in Social Psycholog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63.
- Kubota, Akira and Ward, Robert E. "Family influence and political socialization in Japan."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3 (July 1970).
- Lee, Hyo-Jae. "National Division and Family Problems." *Korea Journal*, Vol. 25, No. 8.

◎ 發刊資料目錄 案內 ◎

〈세미나시리즈〉

- 91-01 轉換期の 東北亞 秩序와 南北韓 關係
- 91-02 岐路에 선 北韓의 經濟社會: 實相과 展望
- 91-03 北韓體制的 變化: 現況과 展望
- 92-01 南北和解·協力時代, 우리의 座標와 課題
- 92-02 북한의 權力構造와 김일성 이후 政策方向 전망
- 92-03 北韓의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 92-04 韓半島 周邊4國의 對北韓政策
- 92-05 轉換期の 南北韓關係: 現況과 展望
- 93-01 統一理念으로서의 民族主義
- 93-02 北韓 核問題: 展望과 課題
- 93-03 中國의 改革·開放
- 93-04 北韓開放에 대한 周邊4強의 立場
- 93-05 南北韓 關係 現況 및 94年 情勢展望
- 94-01 北韓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展望
- 94-02 南北韓關係와 美國
- 94-03 예멘 統一의 問題點

〈研究報告書〉

- 91-01 第2次大戰後 新生國家의 聯邦制度 運營事例
- 91-02 北韓聯邦制案의 分析 및 評價
- 91-03 美國聯邦制 研究: 歷史的 發展過程을 中心으로
- 91-08 韓半島 非核地帶化 主張에 대한 對應方向
- 91-09 東西獨 事例를 통해 본 南北韓關係 改善方案:
정상회담과 기본조약체결사례 중심
- 91-10 國際的 平和保障 事例研究
- 91-11 在野統一案 研究
- 91-12 蘇聯의 東北亞政策 變化와 東北亞秩序 改編: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
- 91-13 北韓體制的 實相과 變化展望
- 91-14 「한민족공동체」 具體化方案 研究:
社會·文化·經濟 交流·協力 中心
- 92-01 統一獨逸의 分野別 實態 研究
- 92-02 中國의 改革·開放 現況과 展望:
北韓의 中國式 改革·開放모델 受容 可能性과 關聯
- 92-03 美國의 對韓半島政策: 韓國安保와 南北韓 統一問題를 중심으로
- 92-04 日本의 國際的 役割增大와 東北亞秩序: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I)
- 92-05 1992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2-06 軍備統制 檢證 研究：理論 및 歷史와 事例를 中心으로
- 92-07 北韓住民의 人性研究
- 92-08 國際社會에서의 南北韓間 協力方案 研究
- 92-09 日本의 對韓半島政策
- 92-10 러시아聯邦의 對韓半島政策
- 92-11 東北亞 經濟協力の 發展方向
- 92-12 統一獨逸의 財政運用 實態研究：統一關聯 財政政策 中心
- 92-13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
- 92-14 南北韓 社會·文化共同體 形成方案：
社會·文化的 同質性 增大方案 中心
- 92-15 北韓의 權力엘리트 研究
- 92-16 東北亞 新國際秩序下에서의 韓半島 統一基盤 造成方案
- 92-17 南北韓 經濟共同體 形成方案
- 93-01 1993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3-02 金日成著作 解題
- 93-03 日本의 對北韓政策
- 93-04 中國의 改革·開放 加速화와 東北亞秩序：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Ⅳ)
- 93-05 中·臺灣關係의 現況과 發展方向
- 93-06 美國 클린턴 行政府의 東北亞政策과 東北亞秩序 變化：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Ⅲ)
- 93-07 東北亞地域에서의 多者間 安保協力體 形成展望과 對應策

- 93-08 獨逸統一後 東獨地域에서의 私有化政策 研究
- 93-09 對北 投資保護 및 紛爭解決方案 研究
- 93-10 脫冷戰期 北韓의 對中國·러시아 關係
- 93-11 北韓 軍事政策의 展開樣相과 核政策 展望
- 93-12 北韓의 人權實態 研究
- 93-14 베트남 統合事例 研究
- 93-15 金正日著作 解題
- 93-16 韓半島 軍費統制方案 研究: 유럽 軍費統制條約의 示唆點과
關聯하여
- 93-17 北韓 家族政策의 變化
- 93-18 主體思想의 理論的 變化
- 93-19 예멘 統合 事例研究
- 93-20 北韓 政治社會化에서 傳統文化의 役割:
北韓映畫分析을 中心으로
- 93-21 북한의 에너지 수급실태 연구
- 93-22 北韓 國營企業소의 管理運營體系
- 93-23 社會主義體制 改革·開放 事例 比較研究
- 93-24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改訂版)
- 93-25 「한민족공동체」 形成過程에서의 僑胞政策
- 93-26 日本의 核政策
- 93-27 東北亞의 新經濟秩序
- 93-28 러시아聯邦의 對北韓政策

- 93-29 南北韓 政治共同體 形成方案 研究
- 93-30 統一論議의 變遷過程 1945~1993
- 94-01 북한 관료부패 연구
- 94-02 美國과 日本의 對北韓 關係改善과 南北關係
- 94-03 韓國의 對러 經濟協力 推進方向
- 94-04 中·臺灣의 統一政策 比較研究
- 94-05 北韓의 社會間接資本 實態分析
- 94-06 主體思想의 內面化 實態

〈統一情勢分析〉

- 91-01 韓·蘇, 日·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北韓關係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 91-02 고르바초프 權力的 現況과 展望
- 91-03 李鵬 中國總理의 訪北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北韓關係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 91-04 第85次 國際議會聯盟(IPU) 平壤總會 綜合分析
- 91-05 中·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 91-06 北·日, 北·美關係 變化展望과 對策
- 91-07 北韓의 유엔加入宣言의 影響과 政策變化展望
- 91-08 美國의 東北亞 安保政策 基調와 最近動向

- 91-09 유고슬라비아의 民族葛藤과 聯邦解體 危機
- 91-10 中國의 對韓政策 展望
- 91-11 葉전의 러시아大統領 當選이 蘇聯國內情勢에 미칠 影響 分析
- 91-12 美·蘇의 對 東北亞政策과 東北亞 軍事秩序 再編 可能性
- 91-13 美·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 91-14 戰術核 관련 부시 美大統領 宣言이 東北亞 및 韓半島安保에 미치는 影響
- 92-01 부시 美國大統領의 아시아4個國 巡訪結果 分析:
南·北韓關係와 관련하여
- 92-02 豆滿江地域開發計劃 發展方向
- 92-03 中國의 改革·開放 深化가 北韓에 미치는 影響
- 92-04 러시아聯邦의 改革과 韓·러關係 展望
- 92-05 東北亞情勢와 統一環境: 1992年 上半期
- 92-06 북방정책 이후 동북아정세와 한반도 통일환경
- 92-07 豆滿江地域開發計劃의 現況과 展望: 開發代案 및
法制度 中心
- 93-01 最近 러시아聯邦의 政局推移: 國民投票 結果를 中心으로
- 93-02 北韓 核問題의 展開過程 分析 및 展望
- 93-03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1~6)
- 93-04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과 北韓의
對南政策
- 93-05 東北亞 多者間 安保協力體 構成展望과 南北韓關係

- 93-06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7~9)
- 93-07 中國의 核實驗이 國際 및 東北亞情勢에 미칠 影響
- 93-08 第5次 亞·太經濟協力體(APEC)會議를 契機로 본
亞·太地域協力の 發展方向
- 93-09 1993年 12月 黨 中央委 全員會議 및 最高人民會議 結果分析
- 94-01 美國의 對韓半島政策: 北韓 核問題와 美·北關係改善을 中心으로
- 94-02 中國의 對北韓政策: 現況과 展望
- 94-03 북한의 對外 개방 現況과 전망: 外자유치 관련법 제정을
중심으로
- 94-04 러시아의 權力構造 改編에 따른 對內外政策 展望
- 94-05 北韓 核問題에 대한 中國의 立場과 우리 對中政策 方向
- 94-06 核關聯 北韓의 協商戰略戰術 分析
- 94-07 韓·日, 韓·中 頂上會談 結果 分析
- 94-08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1~3)
- 94-09 北韓 最高人民會議 第9期 第7次會議 結果分析
- 94-10 韓·러關係 定立方案: 1994年 6月 頂上會談을 契機로
- 94-11 脫北者 發生 背景 分析
- 94-12 北韓의 南北頂上會談 提議 意圖 및 會談의 展望
- 94-13 무라야마(村山) 內閣의 對內外政策 展望
- 94-14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4.~6)
- 94-15 金正日 政權의 登場과 政策 展望

〈世界主要事件日誌〉

91-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4. 1 ~ 1991. 6. 30)

91-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7. 1 ~ 1991. 9. 30)

91-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10. 1 ~ 1991. 12. 31)

92-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 1 ~ 1992. 3. 31)

92-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4. 1 ~ 1992. 6. 30)

92-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7. 1 ~ 1992. 9. 30)

92-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0. 1 ~ 1992. 12. 31)

93-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 1 ~ 1993. 3. 31)

93-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4. 1 ~ 1993. 6. 30)

93-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7. 1 ~ 1993. 9. 30)

93-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0. 1 ~ 1993. 12. 31)

94-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1. 1 ~ 1994. 3. 31)

94-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4. 1 ~ 1994. 6. 30)

〈年例情勢報告書〉

91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1~1992

92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2~1993

93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3~1994

94-01 北韓 核問題와 南北關係: 展開過程 및 發展展望

〈論 叢〉

統一研究論叢 創刊號(1992. 6)

統一研究論叢 第1卷 2號(1992. 12)

統一研究論叢 第2卷 1號(1993. 7)

統一研究論叢 第2卷 2號(1993. 12)

統一研究論叢 第3卷 1號(1994)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1 (1992)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2 (1993)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special edition (1993)

한독 WORKSHOP : ECONOMIC PROBLEMS OF NATIONAL
UNIFICATION (1993)

〈資料〉

92-01 統一 吳 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國文篇)

92-02 統一 吳 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外國語篇)

93-01 藏書目錄：單行本·研究報告書

93-02 藏書目錄：特殊資料

93-03 獨逸 統一條約 批准法律

主體思想의 內面化 實態

研究報告書 94-06

發行處 民族統一研究院

編輯人 民族統一研究院 北韓研究室

서울 중구 장충동 2가 산 5-19

전화 : 237-9288, FAX : 232-5341

印刷處 오름시스템(주) 전화 : 273-7011

印刷日 1994년 10월 일

發行日 1994년 10월 일
